

4일 Market Index			
코스피	4028.51	코스닥	929.83
	(-7.79)		(-2.18)
금리 (미국 9년)	3.025	환율 (원/달러)	1471.00
	(-0.016)		(+3.00)

D램 가격 1년 새 6배 ↑... 삼성·SK, ‘증산 모드’ 전환

내년 서버 D램 수요 35% ↑
공급 증가율은 23% 그칠 듯
메모리업계, 설비 증설 러시

범용 D램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업사이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에 D램 수요가 급증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운영 전략을 강화하는 데 분주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8Gb 평균 가격은 8.1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5달러 수준에서 폭등한 수치다. 메모리 업체들이 AI용 고성능 제품 생산을 늘리면 서 범용 제품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D램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서버용 D램 수요가 올해 대비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공급 증가율은 23%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 메모리 제조사들은 증설을 서두르며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수급난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을 범용 D램에 할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현재 경기 평택캠퍼스와 화성캠퍼스의 파운드리, 낸드플래시 메모리 일부 라인을 D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2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매물이 없다

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접수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월급을 한 톨도 쓰지 않고 9.7년을 모아야 하고, 전세보증금 마련에는 5.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매력 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 물건 감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최근 범용 D램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며 “HBM과 범용 D램 간 상대적 수익성을 고려해 추가 증산 규모는 시황을 모니터링하며 직접 수준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백오브아메리카(BoA) 매릴랜드 IR 행사에서 D램 관련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수년 동안 D램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 대량 공급 계약 보다는 단기 계약 위주 영업 전략을 강화하는 기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증설과 더불어 기존 팹을 활용해 범용 D램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M14 팹의 일부 생산라인 전환 투자, 이전 M16 팹 잔여 공간, 노후 팹인 청주 M8 및 이전 M10 팹 보유 공간 등을 범용 D램 생산 능력 확대에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주 M15X 팹이 HBM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범용 D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조정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에도 실제 생산능력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따른다.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신규 라인 건설을 진행 중이나 가동 시점은 이르면 2028년 상반기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1기 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7년 말 본격 가동이 가능해 당분간 즉각적인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업계 전반에서는 D램 가격이 수개월째 강세를 보이는 만큼 메모리 시장이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시장 구조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협상에 이블에서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따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신한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연임 성공’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회의는 각 후보의 경영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외부 전문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후보자들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곽수근 회추위원장은 “진 회장은 통찰력, 도덕성, 업무 전문성, 조직 역량 등을 두루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재임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계자를 양성해서 지도자를 배출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 들어와서 경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후계자들에게 잘 넘겨주시는 일들을 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진 회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하고, 글로벌 경영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회장은 서울 덕수상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그는 1997년에는 일본 오사카지점에서 일했고 2002년 귀국해 여신심사부 부부장과 자금부 팀장을 지냈다.

2009년 9월 일본 현지법인인 SBJ(Shinhan Bank Japan)가 출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뒤 대표이사 사장까지 역임했다. 이번 회장 연임의 배경에도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평이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보 추천에 대한 적정성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된다. 진옥동 회장 후보는 오는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면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젊은 리더’ 전진 배치... 신규선임 20%가 80년대생

SK그룹 2026 인사·조직개편
임원조직 강화로 미래성장 준비
김종화 지오센트릭 대표이사 겸직

SK그룹이 2026년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현장 중심·젊은 리더 전진 배치’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앞서 진행된 사장단 인사에서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는 1980년대생 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AI 조직을 전면 재편하는 등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전략을 한층 가속화했다.

SK그룹은 4일 수퍼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사에서 결정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사항을 공유 및 협의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현장 중심 실행력 제고 ▲조직 혁신과 내실 강화 ▲차세대 리더

육성 등을 기조로 각사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번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추가적인 사장단 변화로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석유·화학 밸류체인 통합과 최적화를 도모하고 양사 간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선임 임원은 총 85명이다. 지난해 75명에 비하면 10명 늘어난 수치지만 2022년 165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은 젊은 인재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다. 신규선임 임원은 85명인데, 전체의 20%인 17명이 1980년대생이며, 60% 이상(54명)이 40대로 구성됐다. 여성 신규 선임 임원은

8명 중 6명이 1980년대생이다.

신규 선임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8.8세로, 지난해 만 49.4세보다 젊어졌다. 최연소 신규선임 임원은 안홍범 SK텔레콤 네트워크 AT/DT 담당으로 1983년생이다.

성장을 위한 조직 혁신 및 내실 강화 기조도 뚜렷하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룹 전반에 조직 효율화를 시행했으며, 임원 조직 강소화를 통해 ‘작고 강한 조직’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거점에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AI 리서치 센터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안현 개발총괄 사장이 겸직한다. SK하이닉스는 글로

벌 생산 경쟁력 강화를 준비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조직도 신설한다.

또 글로벌 경영 환경과 지정학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 실행을 제시할 ‘매크로 리서치 센터’도 세운다. 이곳에 글로벌 거시경제부터 개별 산업, 기업 분석에 정통한 전문가를 영입해 미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SK이노베이션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AX단을 신설하며, SK에코플랜트는 솔루션 사업(건축)과 에너지 사업(AI 데이터센터 등)을 통합한 AI 솔루션 사업 조직을 출범시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미래 성장 기반 확장 속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성운·원관희·차현정 기자 ysw@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고소인 조사... 신변보호 조치
▲국힘 여성의원 “무고죄는 ‘꽃뱀론’이라 비판하던 장경태... 후안무치”
/사진 뉴시스

▲민주당 문진석, ‘인사청탁 의혹’에 “부적절한 처신 송구”
▲국민의힘, 헌법학자들과 ‘내란재판부’ 긴급세미나 “나치 특별재판소... 위헌성 우려”

▲이준석, 與 인사 청탁 문자에 “김현지 이름 등장 심각... 감시받지 않는 권력”
▲국힘 내부 ‘尹 절연론’... “尹과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계엄의 바다 건너야”

“5년 내 매출 100조 목표… HD현대 특유 추진력 발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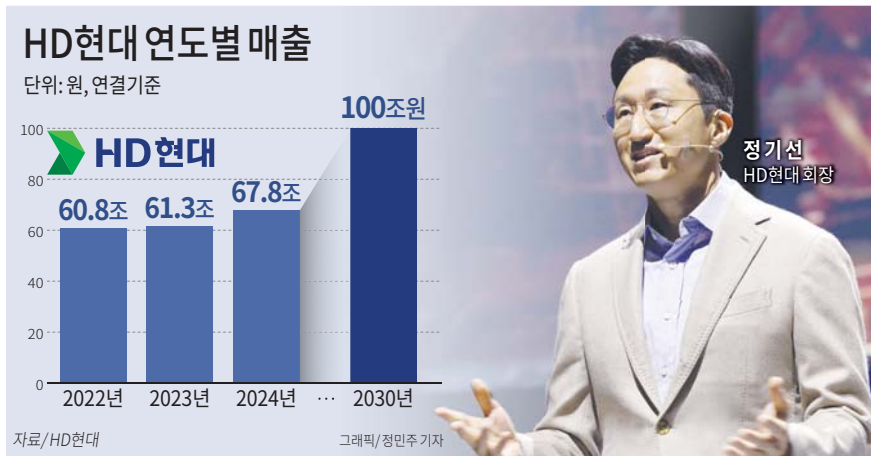
2030 중장기 성장전략·로드맵

정기선 회장 등 경영진 32명 참석
조선·건설기계 등 전사업 전략 점검
조선분야 합병, 시너지 극대화 계획

HD현대가 오는 2030년까지 그룹매출로 100조원을 달성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했다.

HD현대에는 3,4일 이틀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정기선 회장을 비롯한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오일뱅크 등 계열사 사장단 및 주요 경영진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선 발주 사이클 둔화, 미국·유럽·중국 등에서의 보호무역주의와 현지화 정책 강화, 주력 사업에서 중국 등 경쟁기업의 거센 추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기선 회장은 취임후 처음 가진 그룹 전략회의에서 “지금 우리 그룹의 변화와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주력 사업들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리더들부터 HD현대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그룹의 미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에는 회의를 통해 조선·건설기계·에너지·신사업 등 전 사업 부문의 전략을 점검하고, 친환경·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해 향후 5년 내 그룹 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지난 1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회사는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내년 1월 1일 통합 법인 ‘HD건설기계’로 출범한

다. HD건설기계는 제품 라인업을 최적화하고 지역별 생산체계를 전문화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콤팩트 장비 사업을 확대해 콤팩트부터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건설장비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유·석유화학 부문은 원가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전력기기 부문은 생산능력 확대와 중·저압 차단기 시장 공략에 나선다. 동시에 로봇틱스, 자율운항, 전기추진, 연료전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미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미래 성장 로드맵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천 의지”라며 “내년을 기점으로 전 사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중장기 성장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車·부품 관세 15% 적용 美, 관세율포 개정안 공식 현지시간 4일 정식 게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연방관보(3일자 사전 공지) 공개로 관세 인하나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AR)는 3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포(HTSUS)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현지시간 4일 이뤄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변경된 관세 적용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외 다수 품목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총속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10조+ α’ 산업-금융 공동 ‘제조업 AX투자’ 시동

산업부-금융위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 등 기업
기업·산업·KB국민은행 등 총출동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조업 AI 전환(AI) 투자를 위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체계 구축에 공식 착수했다.

제조 AX 분야에서만 10조원+ α의 투자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와 민간의 프로젝트를 직접

연결해 산업-금융 공동 투자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석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과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총출동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과 연계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산업금융 프로젝트다. 특히 30조원 이상을 AI 전환(AI Transformation) 분야에 투자하기로 해 M.AX 얼라이언스의 주력 프로젝트와 연계가 가능하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자율주행·AI팩토리 등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관 연합체(1000여개 기업 참여)다. 산업부가 1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 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휴머노이드 6.6조원, AI반도체 1.5조원, AI팩토리 1.3조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구체적인 AX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국민성장펀드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AI 모델 개발, 로봇 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또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 공정 AI로봇 도입 등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Busan is good
부산이 좋다

풀었습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 금정산,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

멸종위기종 14종 포함 총 1,782종의 야생생물 서식,
문화유산 127점을 보유, 백양산을 포함한 금정산은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입니다.
금정산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금정산국립공원: 총 면적 66.859km²(백양산 포함)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월급은 제자리인데”… 세금·보험료는 연평균 6% 상승

한국경제인협회 “근로자 부담 커져”
실수령액 증가세 둔화, 체감소득 후퇴
생계비 상승률 3.9%, 임금상승 추월
전기·가스·식료품 급등에 가계 압박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이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은 연평균 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근로자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를 보이며 강추위가 찾아온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쳤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가 2020년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는 5년간 월 31만6630원에서 월 39만579

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

균 상승률은 3.9%로 같은 기간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인 연 3.3%를 상회했다.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수도·광열(6.1%)이며 그 뒤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

(2.9%) ▲주거(1.2%)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연료 및 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가 임금 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올랐고 ▲사고·굴·떨기 등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 ▲음식 서비스(4.4%)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4.0%)과 같이 식료품 및 외식 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9.5% 지역가입자는 年 18만원 더 낸다

단계적 보험료 인상 로드맵 본격 시행
향후 8년 동안 매년 동일 비율로 확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부담 격차 커져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향후 8년간 매년 0.5%p 수준의 완만한 인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들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인상된다.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리기로 했다. 기존의 9%에서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스텝’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0.5’라는 수치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직

장가입자가 아닌 서민들의 경우 부담은 특히 더 불어난다.

우선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은 재직 중인 회사 부담이다. 이에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는 셈이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면 월 75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사정은 다르다. 이들은 오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300만 원인 경우 1만5000원을 매월 내야 한다. 1년에 18만 원이고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이를 시 부담은 그야말로 눈덩이이다.

예외는 있다.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소득·저소득층 격차 5.78배로 확대

데이터터치,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지니계수·5분위 배율 모두 악화

지난해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보다 5.78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분배 지표는 지니계수·빈곤율 모두 악화하며 불평등이 확대됐다. 반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터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6032만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 5분위 역시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

2024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

위 배율은 5.78배로 1년 전(5.72배)보다 0.06배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 평균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5.75배)까지 개선세를 보이다 2021년(5.83배) 5년 만에 악화됐다.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선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소폭 악화된 것이다.

균등화 시장 소득 5분위 배율도 11.19배로 전년(10.70배)보다 0.49배p 악화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악화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참가 기업(전문가) 모집 안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베트남 전자전기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에 참여하여 현지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지도 및 기업 간 상호협력 등에 참여할 국내기업(전문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기술전문가 모집 개요

사업명: 베트남 전자전기분야 생산기업 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기간

2025년 5월 ~ 2029년 12월 (56개월)

전문가 수행 내용

- 베트남 수요(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애로기술지도 수행
- 참가업체로 선정 시 현지기업 1개 이상 기술지도 담당

모집대상

현지기업을 방문 애로기술지도가 가능한 국내기업(연 3회 이상)

모집기간

상시모집

지원내용

항공/숙식 및 전문가 수당 지원

참가신청 및 문의사항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준호 책임 (jhlee@katech.re.kr, 031-319-5538)



반도체 독주에 ‘대형주 질주’… 중·소형주는 ‘반쪽 상승’

코스피, 종목별 희비 선명

삼성·하이닉스 중심 집중 심화
중소형 약세로 개인 체감장 미흡
반도체 외 제조·수출 업종은 부진
전문가 “체질개선·리스크 관리 관건”

회사원 이모(37)씨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중소형주에 분산해 3000만원을 투자했다. 연말 이사를 앞두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5000만원을 빌렸는데 이 중 일부를 주식 투자에 썼다. 이씨는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에 박탈감이 컸다”며 “이번 상승장마저 놓치면 안 될 거 같아 빚을 더 늘려 투자했는데 대형주만 오르다보니 수익률은 신통치 않다”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한국경제가 반도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대기업 쏠림에 따른 양극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경제 및 산업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천피 시대의 자화상, 반도체·대형주 쏠림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랠리가 본격화됐던 지난 5월부터 전일까지 코스피 대형주 지수만 63.14%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률(57.57%)을 상회했다. 이외에 코스피 중형주 지수(33.91%)와 코스피 소형주 지수(13.83%)는 상승세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성적에 그쳤다.

일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초대형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반도체 ETF 이미지.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결과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622조1539억원으로 코스피 전체의 18.73%에 이른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394조5773억원(11.88%)으로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30.60%로 8월 29일 20.01%보다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삼성전자 우선주(64조4620억원·1.94%)를 더하면 비중은 32.55%까지 오른다.

이병화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월 말 이후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38개, 전체 상장사의 1% 수준”이라며 “주도주는 견고하고 집중화 현상은 심화된 가운데, 중소형 시장으로 강세장의 온기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주도 종목을 제외하면 저조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반도체가 경기에 따른 부침이 심한 업종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주력으로 삼은 메모리 분야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년 전인 2023년만 해도 가격이 급락한 디램(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재고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삼성전자는 2023년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수요가 급증하는 ‘수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

상승장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며 직접 투자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현타(현실자각 타임)’족도 많다. 지난 7월 초 처음 주

식 투자에 뛰어든 김모 씨(37)는 중소 제조업과 바이오 관련 종목을 대거 샀다. 코스피가 4000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 주가는 보합세를 보이다 결국 떨어졌다. 김 씨는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 데 내 주식만 떨어지는 것 같아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반도체 편중된 한국경제

경제도 상황이 비슷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 대비 1.2%(속보치)로, 시장 예상치(1.1%)를 웃돌았다. 이 덕에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는 ‘반도체 착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I 투자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반도체에 증시 자금이 몰리면서 표면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호황’이라는 것이다. 업통상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약 89조5800억원)로 역대 11월 중 최대를 기록했다. 높은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린 반도체 수출액이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게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11.2%), 선박(-17.8%), 석유제품(-10.3%), 석유화학(-14.1%)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의 50%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수출도 15.9% 줄었다.

올해 3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도 4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3분기 수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40.0%로 지난해 3분기(37.4%)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5년 기업 특성별 분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현대차·LG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 셈이다.

이 같은 쏠림은 증시에도 보인다. 리더스인덱스가 91개 대기업 집단 소속 상장사 368곳의 올해 1월 2일과 11월 3일 종가 기준 시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이 기업들의 시총은 1661조7387억원에서 3030조5177억원으로 8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전체 증시 시총은 2310조9938억원에서 3963조1134억원으로 71.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의 시총 증가세가 더 가팔라. 특히 5대 그룹의 시총 비중은 연초 45.9%에서 52.2%로 6.3%포인트 상승, 전체 증시 시총의 절반을 넘어섰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제조·물류·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AI 기술 내재화, 노동공급 확대 방안 모색 등 구조적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향후 대내외의 리스크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 NCC 구조개편 가속

여수·울산서 통합·감산 논의 확대 세제·규제 특례로 재편추진 환경 개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통과로 업계 구조조정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연구개발(R&D) 지원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구조조정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여수·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벨트에서 재편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수년 전부터 NCC 통합을 검토해 왔으나 공정거래 규제,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실질적 진척이 없었다.

이번 특별법으로 협의·공동행위 승인 절차가 명확해지면서 통합·합작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두 회사가 외부 컨설팅사와 함께 NCC 공동 운영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합작법인(JV) 설립을 포함한 여러 통합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110만t 규모의 설비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솔루션, DL케미칼 합작사인 여천NCC는 생산능력 감축을 고려하고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톤, 73만5000톤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 왔으나 원료가 갱신을 두고 충돌하며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어 왔다. 계약이 타결되면 제 3자 검증을 거쳐 산업은행이 최종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과 함께 사업재편안을 조율하고 있으나 에쓰오일의 사한 프로젝트가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사한 프로젝트가 내년 완공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감산이 병행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은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돼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든 전망이다. 여기에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폭넓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감면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들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데드라인을 제시했고 석유화학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업들이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재편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사한 프로젝트, 울산 산업단지 ‘최대 변수’

에쓰오일 대형설비 증설로 구조조정 치질
사한 영향에 기존 NCC 감산 부담 확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에쓰오일의 초대형 설비증설 사업인 ‘사한 프로젝트’가 울산 지역 구조조정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감축 필요성에 대한 업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도 신규 설비 가동이 예정돼 있어 전체적인 구조조정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여수·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감축과 통합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울산에서 진행 중인 공동 재편 논의는 사한을 둘러싼 변수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재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나 사한이 향후 수급 구도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큰 데다 에쓰오일이 감축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쓰오일이 감축 합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내부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감산이 됐든, NCC 경쟁력 합리화든 어떤 모양새로든 조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동 중이나 폐쇄까지도 모든 옵션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한은 9조원대 자금이 투입된 최첨단 석유화학 복합시설로, 완공 시 연간 18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한다. 현재 공정률은 85%를 넘었으며 내년 상반기 기계적 완공, 2027년 초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업계에 제시한 270만~380만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로, 사한이 본격 가동될 경우 기존 NCC 기업들의 감산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에쓰오일이 감축 논의에서 한발 비켜선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감산을 이어가고, 여기에 수요 둔화와 중국·중동산 저가 제품 유입까지 겹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추가 감축이 불가피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 주자들이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 기존에 없던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설비에 수조원을 투입해 온 기업들이 단기간에 동일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국·중동·인도 등도 잇달아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에쓰오일을 제외한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결국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각 기업은 독자 생존 전략과 합작·통합 등 가능한 모든 조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대한의
첫 연결부터

미래를
여는 경험까지

KT가 이어온 시간
한 곳에 모이다

시간을 거닐다
KT 온마루

2025.12.01.OPEN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 빌딩 WEST 2층

*KT 온마루에서 1885년 시작된
연결의 기술이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여정을 거닐어보세요



與, ‘1인 1표제’ 논란에 힘지 가중치 부여… 갈등해결은 ‘글썄’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20대 1’ → ‘1대 1’ 수정안 의결

지역위원회 무력화 우려 제기
외부세력 개입, 지역편중 문제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차등을 없애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며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당헌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당은 1인 1표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영남·강원 등 전라지역(함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만으로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개정안에 약세·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가중치 비율은 2026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문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외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SNS)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향후 대의원 역할, 지구당 부활, 전당원 투표권 및 요건 구체화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수정안 의결에 나선다.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장 등 600명 안팎으로 이뤄진 당의 결기구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중앙위에) 상정, 의결하고 구체적인 가중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당헌·당규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체로 전준위 심의와 당무위 의결을 통해 하는 방향으로 당

헌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뜨거운 감자’였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란, 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주당은 대의원 표에 더 높은 발언권을 준다. 몇 년 전까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1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이에 타협점을 찾아 ‘20대 1’로 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20대 1’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정 대표의 ‘1인 1표제’ 당헌 개정

은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인 셈이다. 아울러 당원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의 취지와도 맞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의 ‘뿌리 조직’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지역위에서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일하는’ 이들이 대의원이다. ‘1인 1표’를 통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의 권리가 무력화되면, 지역위에서 움직이던 조직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중앙당(대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선 “지구당 도입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지역위원회 무력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두번째 문제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통일교나 신천지가 신도들을 당원으로 입당하도록 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당대회 등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었다. 민주당의 ‘1인 1표’는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평가다.

세번째로는 지역 편중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남·영동지역은 당원 수가 적다. 하지만 대의원은 각 지역별로 수가 비슷해, 일정 지역 의견에 쏠리지 않을 수 있다.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면 ‘당의 전국정당화’는 실패하는 셈이다.

여권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인 1표가 맞긴 하지만, 이를 정착시키려면 ‘유령 당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당 운영체제가 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활동량이 많은 이들이 대의원이나 상무위원들인데, 무작정 권한을 뺏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대통령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 이뤄내자”

무역의날 맞아 산업 역군 초청 오찬
민주주의 이어 산업화도 같이 조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산업을 일궈온 산업역군들을 만나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자”면서 노동·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온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 제조, 산업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놀라운 성과를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 기업인들에게도 “전 세계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 역군 초청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해 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시장을 개척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보려고 하는 치열함이 축적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 발생,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

누는 ‘공정 성장’도 강조했다. 그간 성장의 과실을 일부만 독점했다는 문제의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는 후진국”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터에서 죽어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다행히 하향곡선에서 바닥 찍고 상향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조금 더 성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손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꼭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해 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날(3일)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이날 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도 같이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주화’, 보수정부는 ‘산업화’를 강조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이 같은 선입견을 깨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은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역군 90여명과 지역기업인 8명이다. 특히 포스코 창립 멤버인 이영직 전 포스코 토건부 차장,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인 강명자 구로공단 해설사(구로공단 미싱사), 최초의 국산차 ‘포니’ 탄생의 주역인 이충구 ㈉연합시스템 경영고문 등 우리 산업에서 굵직한 이정표를 세운 주역들이 함께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당 지도부 향해 ‘尹 절연론’ 재차 촉구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나아갈 수 있어
尹 전 대통령 소환하면 지선 못이겨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정치세력과는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한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풀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살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선거에서) 완패했던 악몽이 있는데 지금 여론의 추이나 민심의 흐름을 보면 만약 오늘 선거라면 우리는 완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더 넓은 민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과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여개인이 아니라 윤네 버가 돼야 한다”며 “진실되게 사과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로 가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윤석열과 단절의

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개 계엄 사과문에 자신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취지에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처럼 됐을 때 지도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도, 사과를 하고 싶어도 동참하지 않은 중진 의원들도 꽤 많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자주 소환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李 대통령-손정의 회장, AI·반도체 협력 논의

〈소프트뱅크그룹〉

李 대통령, ‘AI 3대 강국’ 설명하고
소프트뱅크그룹 국내투자 요청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사진)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AI, 반도체 분야 협력과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국



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AI 3대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앞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CEO 등 글로벌 AI 기업 총수들과 연달아 만나며 국내 AI 투자 확대와 기술 생태계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엔디비아의 경우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우리 가족의 은퇴설계 · 상속증여 솔루션

새롭게 펼쳐질 인생 계획 하나하나,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노후 설계



상속·증여



가업 승계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美 ‘내리고’ 日 ‘올리고’… 한은, 금리 결정 ‘진퇴양난’

美 인하 기조 속 방향성 흔들
日 금리 정상화로 환율 불안↑
엇갈린 통화정책에 한은 고민
국내 정책 판단 제약요인 누적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 뒤 이달 세 번째 인하를 두고 막판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은 17년 만의 금리 정상화 수순을 다시 밟을 채비를 하고 있다. ‘美 인하·日 인상’이라는 엇갈린 통화정책 신호가 겹치면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 중인 한국은행이 어느 쪽으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의 금리결정 회의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9월과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리를 잇따라 0.25%포인트(p)씩 낮춰 현재 연 3.75~4.00% 범위로 운용 중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위치에 따르면 오는 12월 9~1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한 번 더 0.25%p 인하해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낮출 가능성이 80% 안팎까지 높아진 상태다.

최근 노동시장 둔화와 일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인하”에 무게를 두지만, 일각에선 “이번 인하 이후 상당 기간 동결을 이어가는 ‘매파적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반대로 일본은행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일 나고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정책금리가 0.75%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후 경로를 더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0.5%인 정책금리를 이달 18~19일 회의에서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던진 셈이다.

우에다 총재의 발언 직후 일본 2년·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의 최고

수준 근처까지 뛰었다.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0.4%가량 강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일본 단기금리에 연동된 스왑 지표를 바탕으로 12월 인상 가능성을 70%대 중후반까지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채권·주식 시장을 흔들 전례까지 겹치면서 일본발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미·일 통화지도가 이렇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움직임이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5월 0.25%p 인하 이후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로 ‘장기 관망’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만약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면 한·미 금리차는 1.25%p(상

단 기준)로 줄어든다. 표면적으로는 자본 유출 압력이 탈해될 수 있지만, 일본이 인상에 나서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엔·달러 삼각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연준을 따라 추가 인하로 가기도, 일본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되레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구조가 된다.

향후 진로를 둘러싼 금융위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은 향후 3개월 금리 방향을 두고 ‘동결’과 ‘인하’ 의견이 3대 3으로 나뉘었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은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성장·물가·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시행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사, 세 부담·비용증가·소비둔화 ‘3중고’

교육세 인상에 추가 세 부담 1000억
고환율로 물가·금리·소비 모두 악화

영업수익 1조원이 넘는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1% 교육세율을 부과하는 국회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카드업계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소비 둔화, 조달 비용 증가까지 3중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내년도 업계 수익성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영업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상향하는 세제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부터 대부분의 카드사가 영업수익의 1%를 교육세로 납부하게 됐다.

앞서 금융권은 교육세율을 상향하는 세제안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카드업계(8개 전업 카드사 기준)의 경우 이번 교육세율세제개편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 세금 지출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는 당국에 영업수익보다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변경해 달라 요청한 바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고객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영업수익 만큼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또 0.5%, 1%로 비율 자체 숫자는 작아보여도 세로 나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여전채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의 조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전채 AA+ 3년물 기준 금리는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 후반대였던 여전채 금리가 3%를 넘어서더니 약 3.5%에 달하는 구간까지 올라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여전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미리 감지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4차례 연속 동결한 바 있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까지 겹치며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14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은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 실제 국세청이 발표한 신용카드 사용 현황에 따르면, 10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8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직전 달인 9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1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 부담과 더불어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변동이 많은 만큼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채선 기자 wotjs4187@



지난 3일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운데)가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현장 직원들과 함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동절기 현장 릴레이 안전점검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
이한우 대표이사 직접 현장방문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와 시흥시 ‘힐스테이트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대비 릴레이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른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및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12월 첫 주를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최고 경영자(CEO)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교육, 현수막 설치, 노사 합동점검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365 안전패트를 팀’을 운영하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조치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및 협력사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비씨카드,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 진행

회원사 발급 카드 전반에 적용
가구·가전·패션 등 할인 제공

비씨카드가 연말연시를 맞아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다.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에서 직접 태그 후 비씨 개인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비씨카드 회원사 발급 카드 전반에 적용된다. 회원사에는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 광주은행, 비씨바로카드 등이



포함된다. 먼저 이달 말까지 이케아 온·오프라인 매장과오늘의집 온라인몰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 이소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300원 할인해 준다. 1일 1회로 연말까지 총 3회 제공되며 최대 9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자제품 관련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하이마트, LG베스트샵, 오프라인 삼성스토어,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100만원 이상 물품 결제 시 1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네이버페이를 통해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G마켓·옥션 1만원 이상 결제 시 1% 할인, 올리브영 5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도 준비됐다. 15일부터는 무신사, 29CM, W컨셉 등 패션 플랫폼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을 지급한다.

여행 부문에서는 항공권 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만원을, 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서는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할인한다. 티웨이항공은 이와 별도로 12월 한 달간 비씨카드 고객에게 전 노선 1만원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안채선 기자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평창 오픈

국민은행 시니어 고객 전문 컨설팅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시니어 고객의 상속 및 증여 자산관리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평창’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평창’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1층에 신설되어 시니어 맞춤형 ‘토탈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

티’는 서울 도심에 자리한 실버타운으로 식사와 고급 스파, 간호사 상주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번 자문센터는 세무 전문가가 상주해 시니어 고객에게 맞춤형 상속·증여 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연금·신탁·법률·부동산·가업승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순환 배치되어 예약 상담을 통한 전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기존 자문센터와의 차별점이다.

/안상미기자

현대차그룹, ‘송창현 사의’에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빨간불’

〈AVP 본부장〉

송창현, 소프트웨어 R&D 이끌어
자율주행 분야 성과 저조 책임

현재 자율주행 수준 2단계 머물러
기술인재 확보 필요… 연말인사 주목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차의 핵심으로 주목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적 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자율주행 개발을 이끈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R&D 조직에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R&D)을 지휘했던 송창현 현대차 AVP(첨단플랫폼)본부장(사장)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의선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 현대차그룹 AVP 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을 내려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에서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놓게 됐다”며 사임을 밝혔다.

이어 “거대한 하드웨어 중심 산업에 소프트웨어 DNA를 심어 인공지능(AI) 기반 디바이스로서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도전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을 마주할 때마다 포티투닷 구성원들의 열정이 저를 버

티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송사장이 자율주행 분야 성과가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R&D 조직은 물론 SDV 기술 개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물론 중국의 완성차 기

업과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은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기술 우위 확보에 나서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 ‘감독형 자율주행(FSD)’ 서비스를 출시하며 새 격변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과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 로봇이 국내 복잡한 도심에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을 이어간다는 것을 검증했다. GM도 국내에 ‘슈퍼크루즈’ 시스템을 내놓으며 자율차 경쟁이 불붙었다. GM의 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조건 아래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차량 간 거리 유지, 교통 흐름에 따른 차선 변경 등도 자동으로 수행한다.

중국 자동차 회사인 바이두, 샤오펑 등의 자율주행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이 한국 진출을 예고한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현재 자율주행 수준은 국내 타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레벨 2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네시스 G90과 기아 EV9에 레벨3급 ‘HDP(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도로 변수와 안전성 검증 문제로 상용화 일정은 다소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이 그동안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첨단 기술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만큼 ‘기술 인재’ 확보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2027년 부터 ‘레벨 2+’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고 이후 개발 중인 모든 기술을 적용한 SDV를 2028년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S일렉트릭, 북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

부산 사업장 제2 생산동 준공

1008억 투자… 생산능력 3배 확대

LS일렉트릭이 부산사업장 초고압 변압기 제2 생산동을 준공하며 북미 중심의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008억원 규모의 생산동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흐름이다.

LS일렉트릭은 4일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에 위치한 부산 사업장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생산동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4일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 내 부산 사업장에서 열린 제2 생산동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새로 완공된 제2 생산동은 연면적 1만 8059㎡(5463평) 규모로 기존 1생산동 대비 연면적은 1.3배, 생산능력(CAPA)은 2.3배 수준으로 확장됐다.

이번 증설로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은 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54kV부

터 550kV급까지 전 라인업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대응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부산 사업장은 국내 유일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기지로, 이번 증설을 통해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능력도 강화됐다. 향후 정부의 HVDC 송전망 구축 사업이 확대될 경우 수요 대응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LS일렉트릭은 2010년 1생산동(2100억원), 2011년 HVDC 전용공장(1100억원), 이번 2생산동(1008억원)까지 총 4200억원을 투입하며 부산 사업장을 초고압 전력기기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왔다. 올해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배전 솔루션 공급과 초고압 변압기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존재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철거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 운영

삼성전자는 5일부터 고객이 새롭게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전에 맞춰 기존 가구장 철거부터 시공, 제품 설치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전자로지텍의 공식 가구 리폼 전문 협력회사를 통해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냉장고·오븐 등 주방가전을 대상으로 가구장 리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매월 이용 고객이 약 50%씩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고객 호응에 힘입어 서비스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고객 혜택도 강화한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서비스 대상 제품을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 원바디 세탁기·건조기, 드럼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 세탁가전까지 확대한다.

또 신규 구매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삼성전자 가전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대상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새롭게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전에 맞춰 기존 가구장 철거부터 시공, 제품 설치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가전 제품 형태와 배치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상부장 ▲수납장 ▲테이블장 ▲홈바 등 총 31가지의 다양한 가구장 설치 옵션을 제공해 가전 제품이 놓이는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는 1년간 AS를 제공하며 상부장 처짐 현상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무상 AS를 보증한다. 또한 철거 비용이 포함된 정찰 금액제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EO 등급 자재를 사용해 고객들이 한층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화 선도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 주최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개발자대회인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을 한국에서 공동 주최하며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이끈다.

LG전자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조직인 ‘이클립스 재단’과 함께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BMW, 현대모비스, 보쉬(BOSCH)의 자회사인 ETAS 등 SDV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기업 관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140여 명이 집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체제(OS), 통신 등 차량 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반 기술인 ‘비차별화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표준화된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사용자 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차별화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성과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LG전자와 함께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S-COR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S-CORE는 중복 개발 방지, 제품 납품 주기 단축, 안전성 강화 등을 목표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중 약 70%를 차지하는 비

차별화 영역 소프트웨어의 공용화·표준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자동차 한 대에는 1억 줄 이상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들어가며 SDV 시대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업계는 표준화를 통한 막대한 개발 리소스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LG전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이끌고 있는 풀피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풀피리는 S-CORE를 기반으로 한 비차별화 영역 위아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차별화 솔루션을 추가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LG전자는 축적된 소프트웨어 역량과 폭넓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SDV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며 SDV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대한항공,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

조직 활성화·책임경영 강화

대한항공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조직 활성화와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 이후 첫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한 만큼 이번에는 소규모 인사를 진행했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는 총 20명 규모로, 김해룡 상무 외 1명이 전무로 승진하고, 구은경 수석 외 17명이 신임 상무로 선임되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했

다고 밝혔다. 동시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승진시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절대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항공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진행했다. 이준한 수석 외 5명이 신임 상무로 선임되었다.

/양성운 기자

50년 송풍기 외길 금성풍력 등 10개社 ‘명문장수기업’ 선정

비행기 날개 착안 ‘에어포일팬’ 개발
美 성능 인증받아… 해외시장 공략

중기부, 올해 경쟁률 9.6대 1 기록
명문장수기업 선정 후 매출 22% ↑

금성풍력은 국내 1위 산업용 송풍기 회사다.

창업주인 정동기 회장은 1975년 당시 서울 입정동에서 ‘동일공사’로 간판을 내걸고 송풍기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로 금성풍력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금성풍력의 송풍기 역사가 대한민국 송풍기 역사다. 비행기 날개에서 착안한 원심팬인 에어포일팬(AirFoil Fan)을 개발, 시장에 내놓으면서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송풍기 핵심부품인 날개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고효율에 소음이 현저히 적었던 에어포일팬은 금성풍력의 효자 상품이 됐다.

이후 회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내 최초로 미국 AMCA(국제공조기기협회)로부터 Air Performance(성능) 인증을 획득했다. 2009년과 2017년에는 AMCA로부터 Sound & Air Performance(소음&성능) 인증, 효율



서울 상암동 DMCE타워에서 열린 ‘2025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서 (왼쪽 7번째부터)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명문장수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등급인증(FEG)을 각각 받았다.

금성풍력은 이같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송풍기 시장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해외시장 공략도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

회사는 정형권 대표가 부친의 뒤를 이어 2015년부터 이끌고 있다.

서울 입정동의 자그마한 공간에서 시작한 금성풍력은 이후 구로동(80년대)→인천 남동공단(90년대)을 거쳐 현재의 충남 제2아산테크노밸리에 자리잡기까지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2~3배씩

성장하는 기업을 토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421억원, 임직원은 115명에 이른다.

‘업력 50년’의 금성풍력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선정한 ‘2025년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정형권 대표는 “회사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아버지와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더할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50년간

끈기있게 한우물을 파 오신 것에 자식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신제품을 통해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국산화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수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금성풍력 외에도 광덕에이앤티, 대한과학, 삼창주철

공업, 유니코정밀화학, 일진코스메틱, 중앙운수, 하이맥, KTE, 명화공업이 제10회 명문장수기업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경우 96개사가 신청해 경쟁률은 9.6대1을 기록했다. 올해 10곳 추가로 ‘명문장수기업’은 총 63개사로 늘었다.

중기부 분석 결과 지난해까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53개사의 평균 업력은 58년이다. 20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1205억원이다. 특히 명문장수기업 선정 전과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비교 시 평균 22%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에 뽑힌 매일식품과 이듬해 선정된 화신볼트산업은 매출액이 100% 이상, 고용인원은 50% 이상 증가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한성숙 장관은 “오랜 기간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경제의 토대를 지켜온 명문장수기업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100년 기업”이라면서 “앞으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업승계 과정의 애로 해소 등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아 등 16곳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중기부-공정위, 우수기업 포상식
공정거래 확립유공자 7명 장관표창

기아, 대동, SK인텔릭스, 두산밥캣코리아 등 16개사가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상식에선 2025년 납품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을 ‘연동우수기업’으로 선정, 표창했다.

중기부 장관 표창은 기아, 대동, HD

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트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공정위원장 표창은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엘에스엠트론이 각각 받았다. 또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7명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아는 올 한해 동안 협력사와 상생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운영한 결과 총 3250억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6만 건 이상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 환율 상승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경감,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상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 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현황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면제 외에 연동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은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피·위반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수기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동국제강 ‘디-메가빔’ 구조 안정성 인증

대형 용접형강 업계 첫 인정받아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자사 대형 용접형강 ‘디-메가빔’이 업계 최초로 한국강구조학회 구조성능평가에서 구조 안정성을 인정받아 기술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디-메가빔은 동국제강이 지난 4월 초도 생산한 맞춤형 형강 제품이다. 이탈리아 코림팩스사의 최신 설비를 통해 후판을 형강 모양으로 용접해 제작하며, 정형화된 규격 없이 고객이 원하는

는 치수대로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m급 초대형 단위 생산이 가능해 ‘메가’라는 이름을 붙였다. H형강 기준 최소 150mm×300mm부터 최대 3000mm×1250mm까지 폭넓은 규격을 구현할 수 있다.

대형 용접 형강은 데이터센터·플랜트·물류센터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안정성과 공간 효율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철강재로 주목받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



지난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에서 진행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두종합기술 최영수 대표 등 中企 대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회공헌 등 유공자 50명 선정

‘2025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에서 삼두종합기술 최영수 대표가 사회공헌 분야 수상자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최가순씨 최권근 대표가 소상공인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 참 좋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

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소상공인 ▲규제혁신 등 5개 분야에서 총 5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영수 대표는 “매출액의 1%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임직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권근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많았지만 이를 참고

이겨냄으로써 참된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실질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앞으로도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에어로, 자체무기 ‘K9A1 자주포’ 출하

R&D·마케팅용… 국내업체 첫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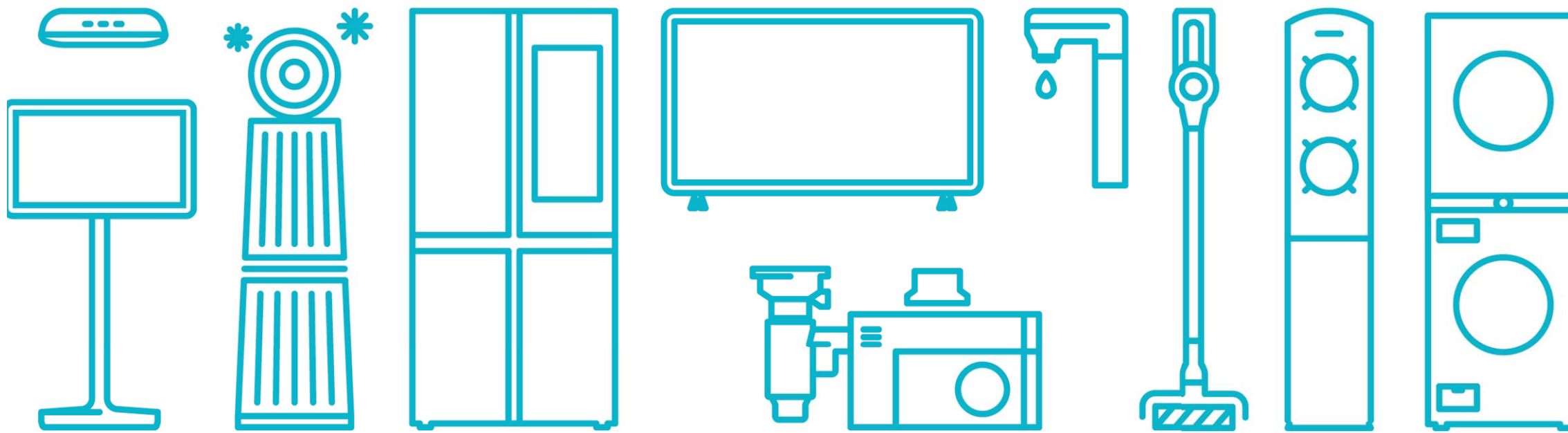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 및 개조·개발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 보유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3사업장에서 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장비는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를 통해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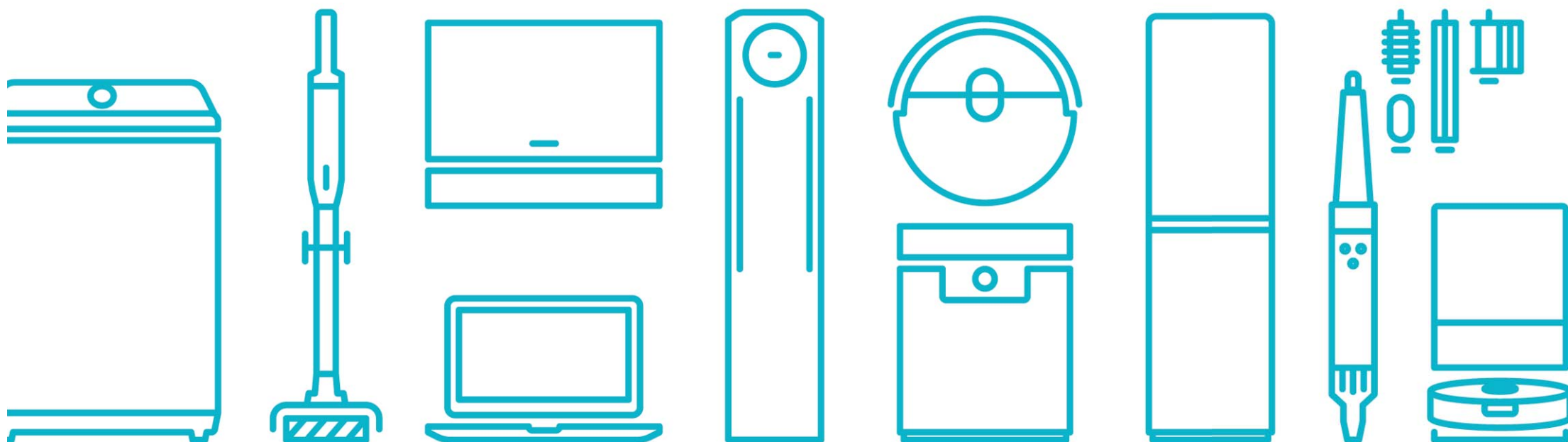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군 장비를 임차해 전시회 참가나 R&D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자체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수출 품목인 K9A1, 포탑 완전 자동화가 추진 중인 K9A2,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등 주요 장비를 자사 명의로 확보하게 됐다. /유혜은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3년 동안 해커와 공존... 방치된 보안이 만든 최악의 사고

개인정보 잔혹사

〈下〉SKT

유심키 평문저장·미패치 등 허술
IMSI·USIM키 등 2600만건 유출
CPO 조직 한계·통지 지연 드러나
30만원 배상조정안 불수락 논란

SK텔레콤 내부망이 3년 넘게 해커에게 잠식된 것도 올해 ‘개인정보 잔혹사’의 큰 이슈였다.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방치된 사이, 통신코어를 포함한 핵심 시스템이 뚫렸고 수천만 건의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정부 조사 결과 SKT는 유심(USIM) 인증키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8년 전 배포된 취약점 패치조차 적용하지 않는 등 구조적 보안 실패가 누적돼 있었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 조사 결과, SKT 내부망 침투는 2021년 8월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종합하면, 침투한 공격자는 관리자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이 알려진 후인 지난 4월,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계정을 탈취해 코어망 서버에 접속한 뒤, 리눅스 운영체제(OS)의 오래된 취약점을 악용해 최고 관리자 권한(Root)을 획득했다.

이후 해커는 ‘BPF도어’ 등 24종의 악성코드와 웹shell을 서버 23대에 심어두고 장기간 잠복했다. BPF도어는 3년 전 처음 보고된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보안업체는 이를 중국 해커조직 ‘레드

멘션(Red Menshen)’의 소행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사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특정 인물의 통화·위치·행동 패턴을 장기 추적하는 고도화된 공격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 규모는 막대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총 2695만 7749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

MEI)뿐만 아니라, 유심 복제에 치명적인 인증키(Ki, OPc)까지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IMEI 저장 서버는 감염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2차 정밀 포렌식 결과 통합고객인증 서버(ICAS) 등에서 대규모 유출 흔적이 추가로 확인되며 말을 뒤집었다.

개보위는 SKT의 허술한 보안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평문 저장’이었다. SKT는 유심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할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상태로 서버에 저장했다. 경쟁 통신사들이 해당 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해킹의 통로가 된 ‘더티 카우’ 취약점은 2016년 보안 패치가 배포됐음에도 SKT는 사고 발생 시점까지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2022년 유심 복제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SKT의 CPO는 주로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네트워크)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

었다. 사고 인지 후 법정 기한인 72시간 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지연한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SKT는 사태 수습을 위해 임원 수를 30% 감축하고 CEO 직속 ‘통합보안센터’를 신설하는 등 고강도 쇄신안을 내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인당 30만 원 배상안’에 대해선 불수락 의사를 밝혔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 대상이 전체 가입자로 확대되어 최대 7조 원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IT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닌, 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시스템 침투가 아니라, SKT 내부의 오랜 방치와 구조적 결함이 총체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리눅스 커널의 ‘더티 카우’ 취약점은 보안 업계에서는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 오래된 구멍”이라며 “통신 코어망 서버에서 이를 8년이나 방치했다는 건 사실상 ‘해커들에게 들어오라’고 대문을 열어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U+, BC카드 데이터로 ‘익시오’ 고도화

카드결제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 검색 정확도·추천 품질 정교화

LG유플러스는 BC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검색 정확도와 추천 품질을 높이는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와 BC카드 양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BC카드 본사에서 ‘BC카드 가맹점 데이터 연계 익시오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LG유플러스는 내년 출시 예정인 ‘익시오 AI 비서’에 BC카드 데이터를 연동할 계획



3일 서울 종로구 BC카드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최윤호 LG유플러스 AI Agent추진그룹장(상우, 오른쪽)과 오성수 BC카드 데이터사업본부장(상무)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이다. 익시오 AI 비서는 통화 도중 대화 맥락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

보를 AI가 직접 찾고 공유하는 능동형 기능을 갖춘 서비스다.

특히 장소 검색 기능에 BC카드 가맹점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 품질을 한층 정교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통화 중 “용산역 맛집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BC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이 높은 식당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자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BC카드는 전국 55만 개 이상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통해 ‘잇플(eat.p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잇플은 방문 패턴과 혼잡도 등 실사용 지표를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력을 통해 익시오의 맛집·장소 추천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BC카드 데이터를 시작으로 AI 검색·추천·번호정보 등 익시오의 핵심 기능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카카오

전문 크리에이터 소통 ‘윽챗상담소’ 4회 운영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부담 없이 질문하고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 크리에이터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윽챗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윽챗상담소’는 특정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가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12월 한 달 동안 총 4회 진행되며, 법률·건강·재테크·우주과학 등 관심도가 높은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모든 라이브 채팅은 화차별로 오후 7시에 시작되며, 사전에 개설된 오픈채팅 커뮤니티에서 진행된다. 채팅방 링크는 카카오 공식 인스타그램과 캠페인 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됐다. 각 회차 종료 시 크리에이터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용자 1인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선물은 주제에 맞춰 ▲법률편 ‘액막이 명대 방향제’ ▲건강편 ‘혼합 12곡 2kg’ ▲재테크편 ‘슈퍼골드 머니건’ ▲우주과학편 ‘달 LED무드등’으로 구성했으며, 당첨자는 채팅방에서 바로 공지된다.

카카오는 최근 ‘오픈채팅 커뮤니티’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 간 관심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개별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기 대화를 피드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무한스크롤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댓글 기능도 적용돼 대화가 뒤섞이며 흐름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는 주제에 집중해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플레이스, 동물병원 실시간 예약

병원별 예약가능 시간 한눈에 비교
‘진료시간’ 조건 필터도 새로 제공

네이버는 플레이스에 등록된 동물병원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예약’ 검색 필터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제 ‘지역명 + 동물병원’, ‘동물병원 네이버예약’ 등으로 검색하면 실시간 예약 필터가 제공되며,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진료 가능한 병원 목록과 예약 가능 시간이 바로 노출된다. 플레이스 상세페이지의 홈탭·예약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이미 식당 업종에 적용돼 예약 편의를 높여왔다.

사용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 가능한 병원만 한꺼번에 모아보고, 병원

별 예약 가능한 시간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방문 결정 과정이 크게 줄어든다.

네이버는 동물병원 업종에 ‘진료시간’ 필터도 새로 제공한다. 검색 후 ▲24시간 진료 ▲주말 진료 ▲공휴일 진료 등 조건을 선택하거나, ‘24시간 동물병원’처럼 직접 검색해 해당 병원만 추려볼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용자의 병원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처럼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처럼 병원별 상세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필터를 통해 진료 중인 병원을 빠르게 찾고 바로 예약까지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KT, AI 개발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GPU 구독서비스 K GPUaaS 제공

KT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소특구 지원센터(이하 충북청주강소특구)에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구독형 서비스 ‘K GPUaaS’를 제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K GPUaaS는 KT가 확보한 엔비디아의 GPU ‘H100’을 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9월 출시됐다. K GPUaaS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인 ‘인파니밴드’를 바탕으로 GPU 서버 간 지연 없는 통신을 제공해 대규모 분산 학습 환경을 구현한다. 또한 ‘GPU 가상화 분할’ 기술로 하나의 GPU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작업량에 따라 자원을

배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GPU 활용 효율을 높였다.

충북청주강소특구는 충북대가 운영하는 기술 핵심 연구기관으로, 스마트 IT 부품·시스템이 중점 특화 사업이다. KT는 이곳에 K GPUaaS를 적용해 AI 개발과 학습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 기반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GPU 활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 AI 개발과 사업화 전반에 필요한 자원으로 함께 지원한다.

KT는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기업으로 K GPUaaS의 진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맥쿼리 “코스피 6000 간다”… 반도체 반등·정책 ‘쌍호재’

메모리 반등, 반도체 이익 급증 전망
맥쿼리 “코스피 PER 낮아 저평가”
JP모건, 韓 아시아 최우선 확대국
밸류업·지배구조 개혁 정책 모멘텀
AI버블·실적변수 등 낙관론 경계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4000선에 머물고 있는 한국 증시를 상대로 잇따라 ‘사라’를 외치고 있다. 증시와 가상자산, 금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 쏠렸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증시로 흘러 들어간다는 분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내년엔 국내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증시도 바닥을 찍고 날개를 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외국계 IB들이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성장’과 정부 정책’에 있다.

◆“한국 비중 확대 하라”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맥쿼리증권은 지난 2일 발간한 ‘코스피 다시 포효: 6000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강한 이익 성장, 풍부한 유동성,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6000선에 근접할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쿼리증권은 자사가 커버하는 올해 증시가 보여준 랠리에도 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4배밖에 안 된다면서 이는 “한국 증시가 실제 실적에 비해 고 평가됐다는 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특히 맥쿼리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승

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할 것이라며 양사가 증시에서 차지할 순이익 비중이 52%, 순이익 증가분은 6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쿼리증권은 “현재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공급난(crunch)에 직면해 있고 향후 2년간 공급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 여력은 상

당하고 시장은 아직 이를 실적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맥쿼리증권은 이 같은 코스피의 강력한 초과 수익(outperformance)과 원화 강세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2026년 아시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최우선 ‘비중 확대’ 국가로 제시하며 강한 낙관론을 펼쳤다. 아시아 주식시장이 각국의 정책 지원과 유동성 확대, AI(인공지능) 관련 업종의 성장 등으로 ‘중간에서 강한 수준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특히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최대 31%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기업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주사 할인 축소로 이어지며 코스피의 지속적 재평가(re-rating)를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T와 반도체 업종이 내년 아시아 전체 이익 성장의 핵심 기여자가 될 것으

로 전망하면서, 한국 기업이 AI 인프라 확대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섹터별로는 메모리와 함께 금융, 지주사, 일부 산업재(방산·조선·전력망 투자 관련) 등에 대해 ‘비중 확대’를,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실적 등 확인해야

그러나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에브리싱 랠리’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버블’이 경제와 시장의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김영의 서강대 교수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4.3%로 예상한다면 적정 코스피 수준은 3500포인트라고 강조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의 급등이 내년까지 강세장으로 이어지려면 단기 실적이 아니라 구조적 이익 추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올해 4분기 실적 시즌은 기대를 현실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이벤트”라고 했다.

코스피지수는 4일 전 거래일보다 1.07% 하락한 3993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7% 하락한 924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 시가총액 500조원을 넘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리동결 장기화… 채권형 펀드서 1.3조 이탈

국고채 금리상승, 채권형 수익률 둔화
주식형 펀드 한 주 새 7932억 유입
한은 매파 기조에 상반기 동결 전망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장기화 전망에 지난 한 주 동안 채권형 펀드에서 1조원 넘게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 390개의 설정액은 104조5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조3408억원 감소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주식형 펀드 1053개의 설정액은 64조1368억원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7932억원 늘었다.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식은 데에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일주일 사이 연 2.902%에서 연 3.022%로 12bp(1bp=0.01%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오른 배경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했다.

이를 시장에서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해석하면서 대체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자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도 저조하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익률은 -0.12%로, 주식형 펀드가 3.19%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증권가는 금리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말에는 기관들의 북 클로징(장부 마감) 또는 손절 물량 출회에 따라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과 물가 경계심이 맞물리며 금리가 빠르게 안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배당정책 구체화해야… 분·반기 배당 기재”

금감원, 배당공시 강화해 예측성 제고

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반기 배당도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이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사 배당정책 관련 사항을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로 간략하게 쓴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천529

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가 부족한 사례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 배당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한 기재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통제 강화 착수

전액손실 사태에 설계·실사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우선 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현재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 및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

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핵심 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직접 나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단계 내부통제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대상 발굴(딜소싱), 실사, 심사 등 주요 절차는 실제 운영 측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대비 주요 통제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투자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운영 측면의 노력은 대폭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으로 ▲실사점검 보고서 등의 펀드신고서 첨부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가동 등을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LS증권

AI 수급분석 서비스

‘카운트플로’ 선보여

LS증권은 머신러닝 수급 분석 서비스인 ‘카운트플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카운트플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데이터를 수치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의 텐서플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분석 정확도를 높였고, 수급 강도를 점수로 알려준다. 투자자들은 카운트플로를 통해 장중 매수·매도 세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급 강도의 상승·감소 흐름을 파악해 주요 전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여러 종목의 수급 강도를 비교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 테마 대응, 단기 매매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코어테크, 순자산 1조 돌파

AI·반도체 중심 유입 지속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의 순자산이 3일 기준 1조 9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올 10월 이후 약 2400억원이 새롭게 유입되며 역행 흐름을 보여줬다. 단기 테마에 따라 자금이 빠르게 움직이는 일반 펀드와 달리, 꾸준한 성과와 명확한 운용 철학이 지속적 유입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차전자기·인터넷·소프트웨

어 등 국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업종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퍼타시스, 대덕전자, 효성중공업 등으로 반도체 고도화와 전력기기·소부장 등 미래 기술 트렌드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이다. 벤치마크 없이 코스피를 참조 지수로 활용하는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며, 단기 변동성보다 장기 성장성을 우선한다.

미래에셋은 일찍부터 글로벌 성장 산업 분석 역량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해 왔다.

/허정윤 기자

농어촌公, 민생활력 규제개혁 공개

농지은행, 현장요구 반영 ‘제도손질’

민원수용 용역입찰 참가자격 완화 등
사내공모 발굴·과제 등 18건 재정비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올 해 추진해 온 규제개혁 18건을 4일 공개했다. 입찰 자격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제도를 손보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중심이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로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점검해 총 1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용역 입찰 참가자격 완화다.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에 접수된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 결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실적 평가에서도 유사 실적과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은행 분야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농지를 임대수탁하는 경우 소유자가 농업인이라면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낮췄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공사는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계약 내역을 즉시 전송하는 윈스톱 서비스도 도입해, 농업인이 별도 방문 없이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의무였던 원상복구 조항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면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했다.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길을 열었다.

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도 마련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지원 약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내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막을 올린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개막식 발언에서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는 내용의 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의 포럼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농식품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가치 창출’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 및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시장 개척 및 수

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설계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CEO 전사적 안전점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1월 11일 ~ 12월 2일까지 약 한달간, CEO가 직접 주관하는 ‘전사적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투입됐으며, 이영조 사장은 주요 사업소를 순차 방문해 현장 안전 경영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1일 보령발전본부(신복합·옥내저탄장 건설현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방문을 시작으로, 12일 신서천발전본부 동백정 복원공사, 13일 함안복합발전소 건설현장, 28일 서울발전본부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임직원들이 ‘AX 미래전략 Day’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2030 AX 비전·전략’ 공개
남부발전, AI 전환 본격화

부산 본사에서 ‘AX 미래전략 Day’

한국남부발전이 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본격화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부산 본사에서 ‘AX 미래전략 Day’를 열고, 2030년까지 추진할 AX 비전과 전략을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고 AI·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영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X 미래전략 선포 ▲AX 리더십 교육 ▲KEMI(자체 구축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남부발전은 올해 새롭게 수립한 ‘2030 AX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전사 핵심 업무를 AX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비 운영·발전 효율·안전관리 등 발전소 운영 전 분야에 AI 기술을 대폭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AI·데이터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체계, 실행 거버넌스, 세부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AX 리더십 교육’ 세션에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AI 전환 사례가 공유됐다. 강연자로 나선 국내 전문가는 “AI 성공의 관건은 데이터의 질·접근성·활용 체계에 있다”며 “남부발전은 설비 운영과 에너지 수급 등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AI 적용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는 전사 임직원이 참여한 ‘KEM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남부발전이 자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 KEMI를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낸 ‘성공 사례 부문’과 미래 적용성을 높게 평가받은 ‘신규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수 제안이 다수 발굴됐다. 회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AX 로드맵에 반영해 AI 기반 업무혁신을 전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집행간부 절반이상 물갈이 ‘인적쇄신’

성과우수·전문성 갖춘 인재 전면배치

농협중앙회가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등 고강도의 인적 쇄신에 나섰다고 밝혔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농협이 천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실제 인사에 반영한 결과물이다.

농협은 기존의 인사 관행을 없애고 임기가 남은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된 과감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또 성과우수, 전문성, 혁신역량, 현장경험 등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로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 등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도 눈에 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체질개선 및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집행간부 인사에 이어 중앙회 및 계열사 임원 인사도 내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公,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출시

하나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 산재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혜택을 대폭 확대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산재연금증카드)’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전용카드는 병원 치료비와 약값 할인에 더해 교통비·마트·주택관리비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전용카드의 주요 혜택으로는 ▲병원·약국 등 의료비 할인, ▲버스·지하철·택시·철도·시의·고속버스 등 교통비 할인 ▲마트·학원비·관리비·전기·가스요금·주유비 등 주거·생활요금 할인 ▲국내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이다.

앞서 공단은 하나카드와의 기존 업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을 조성해 산재연금수급자 389명에게 자녀 학비, 건강검진 비용, 문화생활 비용,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후원 분야와 대상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삼성전자, 99개 기업에 특허 무상제공

산업부, 기술나눔행사 개최

삼성전자가 특허 125건을 99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서 삼성전자 윤성환 상무, 70여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오고 있고, 누적 제공기술은 7008건에 달한다. 이 중 1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대상 기술은 모바일·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영상·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들로 이루어졌으며, 99개 기업에 125건의 우수기술이 이전된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통신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되었는데, 그중에서 ‘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당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대응시켜 입력된 메시지의 문맥·감정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우수기술이 활발히 이전돼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영어 1등급 ‘3.11%’… 국어·영어 고득점자가 상위권 주도

〈역대 최저 비율〉

2026 수능 실재점 결과

국어 1등급 4.67%, 수학 4.62% 집계
국어, 전년比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
사회·과학 고득점자 수 크게 엇갈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재점 결과,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로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전 과목을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사상 최대 불수능을 기록하고 국어도 불수능 수준의 난도를 보이면서 상위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47점, 1등급 비율 4.67%(2만2935명),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 139점, 1등급 비율 4.62%(2만1797명)으로 집계됐다. 절대평가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1만5154명)에 그쳐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의 특징은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1등급 비율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8점 ▲국어·수학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던 지난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두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 확대 등이다.

특히 국어는 지난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하며 상위권 변별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표준점수는 전체 수험생의 점수 분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로, 고득점자가 적을수록 최고점이 높아지는 구조다. 즉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은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고 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반면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

락해 두 과목 간 격차가 전년(1점 차)보다 대폭 커졌다.

영어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변별력을 보이면서 상위권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수학 고득점자가 상위권을 주도하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고, 국어와 영어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해결한 이른바 ‘국·영 우위형’ 수험생이 최상위권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의 1등급 구간 내 점수 차도 동반 확대됐다. 국어는 14점(전년 8점), 수학은 11점(전년 9점) 차이가 발생해 두 과목 모두 변별력이 강화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국어 최고점자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 대비 75.3% 감소했고, 수학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전년(1522명) 대비 48.8% 줄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 간 흐름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사회탐구(사탐) 2등급 이내 인원은 7만9611명으로 전년 대비 30.0%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과탐)는 3만7308명으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다.

사탐은 사회문화(+48.0%), 생활과윤리(+29.0%), 윤리와사상(+29.8%) 등에서 ‘2등급 이내 고득점자 수’가 크게 늘었고, 과탐은 지구과학1(-29.3%), 생명과학1(-17.3%), 화학1(-46.7%) 등 주요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일제히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사탐은 세계지리(73점)가 가장 높고 정치와법(67점)이 가장 낮아 6점 차를 보였으며, 과탐도 생명과학1(74점)과

물리2·지구과학1(68점) 간 6점 차가 발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탐 선택자 증가와 과목 간 점수 차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른바 ‘사탐란’ 현상이 정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대평가 영어의 난도 상승이 수시·정시 모두에 심각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별 영어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대표이사는 “국어·수학 난이도 격차 역시 ‘수학은 잘 봤지만 국어를 못 본 학생’의 정시 전략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탐 선택 증가·과탐 감소로 문·이과 교차지원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에 따라 지원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올해 정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입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기준을 조속히 발표해야 수험생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IB 학교 운영성과 공유

〈국제바칼로레아〉

내일 ‘2025 IB 콘퍼런스’ 열어
서울교육 지향점 실천방안 모색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6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 서울 국제바칼로레아(IB)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탐구형 수업,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 체제 도입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2025년 현재 총 114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IB 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서울교

육의 지향점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IB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 ‘미래 서울교육의 지향점’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 교육의 현안과 공교육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박형주 전 아주대학교 총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2부 세션 1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교’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강의로 운영되며, 학습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교사, IB 평가방법 및 사례,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방법 등 IB 교육에 대한 심층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부 세션 2의 ‘미래 서울학생역량, 교실에서 시작하다’에서는 초·중·고별 총

24개의 강의실에서 수업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초등학교 과정은 개념 중심 수업의 실천, 평생학습자로서의 주도적 성장 등 11개의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중학교는 교과군 수업 사례, 학습접근방법(ATL)의 수업 적용 등 7개 주제를, 고등학교는 탐구 수업 디자인 방법, IB 코디네이터의 역할 등 6개 주제의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IB 콘퍼런스는 교사가 성장하는 교육 전문가이자 탐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협력적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취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학생 미래역량 중심의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뭣, ‘종묘~남산 녹지축’ 세운 재개발 의지

오세훈, 세운지구 찾아 정비사업 논의
녹지·활력 미래공간 전환 목표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듣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려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사업과 직결돼 있다.

세운지구는 해당 전략에 따라 핵심상가군을 공원화하고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약 13.6만㎡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부터 종묘, 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이 완성될 경우 녹지 확충은 물론 도심 경쟁력 역시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묘 일대의 역사 경관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해소해 정체·낙후 이미지를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주민 간담회는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의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지연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1990년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과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상가를 철거하고 종묘~남산을 잇는 녹지 조성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세운지구의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물 비율이 57%에 달해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6m 미만 도로가 65%를 차지하는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환경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주민 목소리를 경청한 오 시장은 “노후 도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개발 논리를 떠나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비사업의 재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동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병목지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세운지구 노후 인프라 개선 ▲안전 확보 ▲개방형 녹지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남산 녹지축이 생기면 세계 도시계획사에 획기적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 갈등이 높은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양근대교 확장공사’ 추진 속도

김동연 지사 ‘민생경제 현장투어’
“내년 2월 착공 목표… 양평군과 협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라가는 곳마다 달라



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 기존 2차로 1km 구간을 폭 약 20m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

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타당성 재검토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공사를 발주했다. 내년 2월 착공 및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남양평 교차로(IC)를 통해 양근대교와 연계돼 특히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5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책을 소개하면서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교통 민생’ 해결 노력이 양평에서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불닭, K-푸드 위상 높였다”… 삼양, 업계 첫 ‘9억불 수출탑’

삼양식품, ‘무역의 날’ 기념식서
브랜드탑·은탑 산업훈장도 받아

1년간 9.7억불 수출실적 달성
100여개국서 해외 매출 80%

삼양식품이 ‘불닭’의 힘으로 식품업
계 최초 ‘9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삼양식품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
념식에서 식품업계 최초로 ‘9억불 수출
탑’을 수상하고, ‘삼양’브랜드로 ‘브랜
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삼
양식품 부회장은 수출 증대와 K푸드 위
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
장을 받았다.

수출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체
에 주는 상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
해 연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수출 실
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삼양식품은
해당 기간 이 기간 9억7000만 달러 수출



외국인이 불닭볶음면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

/삼양식품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7억 달러 수출
탑 수상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
과다.

같은 기간 삼양브랜드는 2400만 달러
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브랜드탑’을 수
상했다.

삼양식품은 주력 수출 품목인 불닭볶

음면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내 K푸드
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거점에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생산공장을
증설하는 등 해외사업기반을 강화하면서
삼양, 탕글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삼양식품은 100여개국에 진출

해 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80%에 달
한다.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삼양식품의 해
외 매출은 51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어나며 지난 해 부터
매분기 최고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
다. 전체 매출액 6320억 가운데 차지하
는 비중은 81%로 높아졌다.

특히,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법인 삼양아메리카는 3분기 전년 대비
59% 증가한 1억1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
사의 매출은 56% 성장한 9억 5100만 위
안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내년부터 밀양2공장을
가동하며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고, 수
출 지역을 다변화 하며 관세 여파를 최
소화 할 계획이다.

이날 김정수 부회장은 은탑산업훈장
을 수훈하며 식품 수출 확대에 국가 경

제에 기여하고, K푸드의 우수성을 알
리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부회장은 불닭볶음면이 SNS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6년부터 해외진
출을 주도하며 수출국과 현지 판매망
확대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삼양식품
을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키고 불닭브랜
드를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해 수
출의 핵심 동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수 부회장은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하
기 위해 꾸준히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음식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윤아리 삼양식
품 품질안전본부장은 높은 품질 신뢰도
확보를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
로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엔하이픈·투어스 협업 과자 출시

하이브 2개 보이 그룹과 컬래버
크런키 더블크런치바 그린티 등 5종

롯데웰푸드가 하이브(HYBE)의 인
기 보이 그룹 ‘엔하이픈(ENHYPEN)’,
‘TWS(투어스)’와 협업한 겨울 시즌 온
팩 제품 5종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패키지 전면에 멤버 전원의 매력을
담은 단체 사진을 배치하고, 리본 장식
을 더한 선물 박스 형태로 디자인했다.

특히, 이번 컬래버 제품에는 멤버들
의 사진과 앨범 커버, 그래픽을 활용한
‘빅 랜덤썸’이 함께 담겼다. 랜덤썸은
각 아티스트별 27종, 총 54종으로 구성
됐으며, 가로 5.5cm, 세로 8cm의 박사
이즈로 제작했다. 제품마다 랜덤썸 1종

이 무작위로 포함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컬래버 제품은 ‘엔
하이픈’ 온팩 ▲크런키 더블크런치바
그린티 ▲제로 블랙커런트베리 젤리 ▲
몽쉘 코코넛&밀크커피 등 3종과 ‘TW
S’ 온팩 ▲꼬갈콘 바닐라밀크맛 ▲말랑
카우 블루베리치즈 등 총 5종이다.

‘크런키 더블크런치바 그린티’는 바
삭한 블랙 웨이퍼를 속 진한 녹차크림
이 들어간 제품으로, 마지막 한입까지
깊은 녹차 맛을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제로 블랙커런트 베리 젤리’는 블랙커
런트와 7종류의 베리 농축액을 담아 상
큼달콤한 맛을 선사한다. ‘몽쉘 코코넛
&밀크커피’는 진하고 씹살한 밀크커피
맛 크림에 달콤하고 은은한 코코넛 필

링이 더해져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프리미엄 디저트이다.

‘꼬갈콘 바닐라밀크맛’은 밀크시럽
으로 감싸고 바닐라 시즈닝으로 마무리
해 깊고 부드러운 이중 풍미를 담았다.
‘말랑카우 블루베리치즈’는 블루베리
의 상큼달콤함과 우유, 치즈의 고소함
이 어우러져 폭신폭신한 식감을 선사
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글로벌 팬덤
을 보유한 하이브 인기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롯데웰푸드의 대표 제품들
에 색다른 맛과 특별함을 더했다”며 “좋
아하는 아티스트의 패키지를 선택해 최
애와 함께하는 달콤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신세계스퀘어서 푸빌라 뮤지컬 상영

신세계백,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신세계백화점은 5일 신세계스퀘어에
캠페인 영상 SHINSEGAE MUSICA
L WONDERLAND를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CJENM과 협업해 제
작됐으며, 뮤지컬 킹키부츠와 비틀쥬스
배우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자체 캐릭
터 푸빌라가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다
시 깨우기 위한 여정을 담았으며,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와 캐
롤을 압도적인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상영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
지다.

연말을 장식할 특별 공연도 마련됐
다. 오는 22일 오후 8시 신세계남산 트
리니티홀에서 피날레 공연이 열린다.
킹키부츠의 신재범, 강홍석, 비틀쥬스
의 김준수, 장민제, 물랑루즈!의 이석



신세계 뮤지컬 원더랜드 본편 영상 이미지.

/신세계백화점

훈, 김지우, 정선아 등 인기 배우들이
출연해 3개 뮤지컬을 한자리에서 선보
일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모바일 앱 신세계 원
더 홀리데이(SHINSEGAE WONDER
HOLIDAY) 페이지를 통해 오는 7일까
지 사연을 접수받고, 추첨을 통해 고객
300명을 초청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이마트, 3일간 방어회·한우 반값 행사

고래잇 페스타 마지막 주말

이마트가 12월 고래잇 페스타의 마지
막 주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
친다. 이마트는 5일부터 7일까지 겨울
방어회와 한우 등을 반값에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철을 맞은 겨울 방어

회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및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마트
는 거제, 통영 등에서 5kg 이상 방어 물
량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SSG닷컴
주간배송을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으
로 만나볼 수 있다. SSG닷컴은 지난해
테스트를 거쳐 올해 물량을 10배 이상 늘
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손종욱 기자



SSG닷컴

세프 협업 케이크 2종

SSG닷컴이 서촌 유명 디저트 카페
오쁘띠베르의 박준우 셰프와 협업한
케이크 2종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4
일 밝혔다.

신제품은 프랑스식 머랭 케이크인 메
르베이유 화이트와 메르베이유 다크 2종
이다. 바삭한 머랭 쿠키에 휘핑크림을
채우고 각각 만다린과 체리 콩포트를 곁
들여 상큼함을 더했다.

이번 상품은 개별 포장된 2개입(각 80
g)으로 가격은 1만1980원이다. 1~2인
가구와 연말 홈파티 수요를 겨냥해 매장
상품 대비 크기는 줄이고 수량은 늘려 가
성비와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손종욱 기자

홈플러스, 1+1 후라이드 치킨 ‘9990원’

CRAZY 특가 일환… 내일까지 행사

홈플러스가 연말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후라이드 치킨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CRAZY 4일 특가 행사
의 일환으로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
틀간 홈플러스리 갓튀 후라이드치킨을

9990원에 1+1으로 판매한다. 고객은 갓
튀긴 후라이드 치킨 두 마리를 1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는
1인당 2마리 한정으로 진행되며, 점포
별 준비 물량은 상이하다. 홈플러스리 갓
튀 후라이드치킨은 100% 국내산 냉장
닭고기를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손종욱 기자

CJ온스타일-유튜브 ‘발견형 쇼핑’ 확대

우수 크리에이터·채널 대상

전담조직 통한 ‘전략적 투자’ 추진

CJ온스타일이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영상 기반 ‘발견형 쇼핑’ 전략을
본격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국내 최초로 유튜브 쇼핑 파
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협
업이다.

CJ온스타일은 모바일 라이브, 숏폼
등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자사 앱과 유
튜브를 아우르는 두 트랙 전략에 속도
를 낼 계획이다.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소비가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영상 시청 중 상품을 발
견하고 구매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업은 생필품이나 패션·뷰티
중심이었던 기존 유튜브 쇼핑 파트너들
과 달리, 라이프스타일 전 카테고리

고관여 상품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
화된다.

특히 CJ온스타일은 우수 크리에이터
및 채널을 대상으로 전담 조직을 통한 ‘전
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단순 판매 협력을
넘어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며 생태
계를 함께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7월 ‘인플
루언서 쇼’를 통해 목표 대비 131%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앱 내 콘텐츠 피드
‘퍼플닷(PurpleDot)’으로 탐색과 구매
의 순환 구조를 구축해왔다.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해 이달 17일까
지 크리에이터 지원 행사도 진행한다.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우수 크리에이터에게는 셀럽과의
공동 방송, 맞춤형 제품 기획, 전담 매
니저 매칭 등을 지원하며, 활동 우수자
에게는 총 30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
공한다.

/손종욱 기자

바이오협회 “AI 기반 산업전환 불가피… 규제개편 ‘관건’”

‘바이오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
AI, 신약·제조 전반에 확산
글로벌, AI 투자·협력 가속
데이터·표준화 기반은 취약
국내 성장세 둔화 우려 지속
업계 “규제 병목 해소 급선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신약개발부터 바이오 제조까지 전 분야를 고도화하며 새로운 혁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바이오 제조 공정 자동화 등 산업 모델 자체를 바꾸는 핵심 도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4일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한국 바이오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표, 바이오 산업 최신 동향 공유, 2026년 전망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우선 삼성KPMG 제약바이오산업 리더 박상훈 파트너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동향과 전망’ 발표에서 “전 세계 CEO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71%가 인공지능을 최우선 투자 분야로 꼽았고 77%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역량 강화가 조직 성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바이오 산업에서는 전체 산업 평균(68%)보다 높은 79%의 CEO가 인공지능 연계성을 긍정적으로



4일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 바이오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전망했고 관련 M&A라든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성봉헌 박사는 ‘인공지능 활용 바이오 파운드리 활성화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제 실험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위한 ‘디자인(D)·빌드(B)·데이터(D)’ 순환 체계의 중요성을 알렸다.

성 박사는 “아직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고 있다고 해도 해당 자료들을 표준화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져다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상용화를 촉진하는 바이오 데이터 기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산업군별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레드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환호 퀀텀인텔리전스 대표는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을 접목함으로써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 대해 설명했다. 최 대표는 “화학 구조를 수학적인 구조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고, 화학적 결합이나 화학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전자 분포 등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자 컴퓨팅 기반 분자 시뮬레이션 등 신약개발에 최적화된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바이오협회의 오기환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2025년 주요 이슈와 성과, 2026년 성장 전략을 소개

했다.

오 센터장은 “올해 들어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등 독자 플랫폼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했고 특히 글로벌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치열하게 약진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까지 임상, 신약, 기술력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나가면서 3강 구도가 자리 잡고 있고 글로벌 의약품 시장 자체가 10%~14%씩 성장하는 데 비해 한국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짚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오 센터장은 “신약개발 지원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전임상 부문에 65%, 임상 부문에는 20% 수준이 이뤄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임상 과제가 많이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임상을 위한 펀드 조성이 활성화되면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임상 관련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협회는 인공지능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통해 다가오는 바이오 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산업·정책·연구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

박상영 신임대표 선임 2인 각자대표 체제 구축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



박상영
대표이사 사장

광동제약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박상영 경영총괄 사장(사진)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 2인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두 대표가 각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은 전략·신사업·R&D 총괄 CEO로서 회사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신사업 발굴 및 투자,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을 주도하며 광동제약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영 대표이사 사장은 경영총괄 CEO로서 주요 사업본부와 지원조직을 총괄하며 조직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전사 경영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CT-P70, FDA 패스트트랙 지정

초기 잠재력으로 패스트트랙 선정 임상 단축 기대에 후속 개발 준비

셀트리온은 항암 신약파이프라인 ‘CT-P70’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CT-P70은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후보물질이며,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다.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 발현과 함께 과거 전신 항암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진행하

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상 환자가 기존 방식으로는 제한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고위험 환자군’이라는 점과 ‘CT-P70이 보이는 초기 개발 데이터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승인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기존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 질환에서 전체 개발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개발사는 ▲규제

기관 소통 창구 확보 ▲임상시험 설계 및 개발 전략에 대한 조기 협의 ▲우선 심사 및 가속승인 가능성 확대 ▲순차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CT-P70 개발뿐 아니라 후속 파이프라인의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대비하는 ‘신속개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CT-P71, CT-P72, CT-P73 등 후속 ADC·다중항체 기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연말까지 CT-P70을 포함한 총 4종의 후보물질을 임상 단계에 진입시키고 오는 2027년까지 임상 단계 10종 이상을 포함한 총 20종 규모의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70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셀트리온의 신약이 의료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FDA로부터 공식 확인 받은 것”이라며 “이번 지정을 발판으로 후속 ADC·다중항체 등 개발중인 신약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신청을 이어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플라즈마, 인니 자급화 CMO 본격 가동

혈장 기반 첫 완제품 출하

SK플라즈마는 지난 2일 안동공장에서 인도네시아 혈장을 원료로 제조된 혈장분획제제 완제품의 초도 분을 출하했다고 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혈장분획제제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자국민 혈장을 활용해 생산한 혈장분획제제를 공급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 혈장으로 만든 완제품 출하 및 독점적 공급은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 복지부가 SK플라즈마 코어 인도네시아를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프로젝트’ 사업자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생산 인프라 구축 전까지는 SK플라즈마가 약 30만 리터의 혈장분획제제 위탁생산(CMO)을 맡기로 했다. 이후 올해 4월 인도네시아 측이 SK플라즈마에 자국민 혈장을 보내 안동공장은 분획·정제 등 주요 공정을 거쳐 알부민, 면역글로불린을 생산했다.

아울러 SK플라즈마는 신규 공장 설립과 완제품을 수출하는 CMO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초도 수출은 그 첫 사례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액상 수면유도제 ‘이지퀵나잇액’

파우치 액상 제형으로 물 없이 복용

동아제약은 국내 첫 액상형 수면유도제 ‘이지퀵나잇액’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지퀵나잇액은 일반의약품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다. 이 성분은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함으로써 수면을 유도한다. 타 진정 성분 대비 내성이 적어 다음 날에도 잔여 졸림 현상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또 디펜히드라민염산염 단일 성분 제품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액상

형태로 체내 흡수 속도가 타 제형보다 빠르다.

이와 함께 포도, 자두, 라벤더 향이 더해졌다. 파우치 형태로 개별 포장해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단 만 15세 이상부터 1일 1회 1포 복용 가능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지퀵나잇액은 간편한(이지) 복용으로 평온한(트랜quil) 밤(나잇)을 의미한다”며 “수면장애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지퀵나잇액으로 일시적 불면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자체개발 치과 마취제 ‘오스템리도카인’ 선포

오스템임플란트가 국내 치과 전문 마취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오스템리도카인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접 개발 및 허가,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맡아 개발한 치과 마취제다.

국내에 허가된 국산 리도카인-에피네프린(1:100000) 제품은 지난 46년 간 외산 상품이나 국내 위수탁 상품 허가 제품으로만 구성돼 종류가 3종으로 의료진 선택의 폭이 좁아 신규 제제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고 있던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신규 출시한 ‘오스템리도카인’은 빠른 마취 효과 발현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품이다.

마취의 강도와 시간을 평가할 수 있는 본 프레이 검사를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한 결과, 마취 효과 발현이 실험군 대비 약 36% 이상 빠름이 확인됐다. 전체적인 마취 유지 시간은 실험군과 동등 수준으로 안전성까지 검증됐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마취 후 발현되기까지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 생산까지 전담해 신제품 오스템리도카인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PEANUTS®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2025 Krispy Kreme Doughnut Corporation
©2025 Peanuts Worldwide LLC | www.peanuts.com

롯데케미칼, 해초지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2027년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거머리말 군락지 약 0.1ha 복원 지원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연구 후원도

롯데케미칼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 해양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처인 해초지(거머리말 군락지) 복원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케미칼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 금오도 연안에 약 0.1ha(헥타르) 규모



3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번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왼쪽)과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의 거머리말 군락지 복원 사업을 2027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지정한 관심필요종인 ‘거머리말(해조)’ 약 1만주를 심고,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연구를 후원한다. 거머리말은 수질 정화 기능 등 해양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총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년도에는 적지조사를 바탕으로 복원후보지를 선정하고 거머리말을 이식하는 ‘기초 생태 기반 마련’, 2차년도에는 복원지 내 해양쓰레기 등 교란 요인을 제거하고 복원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생태 회복의 안정화’, 3차년도에는 복원지 사후관리 및 해양 생물종 조사 및 연구 등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구축’ 과정을 진행한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기보, 111명 ‘신입직원 입사식’ 열어

기술보증기금이 4일 신입직원과 가족, 임직원이 함께하는 ‘2025년 신입직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직무능력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명을 선발했다.

/기보



NC AI, 대통령·과기부 장관 표창 수상

NC AI는 이연수 최고경영자(CEO·왼쪽)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김민재 최고기술책임자(CTO·오른쪽)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인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NC AI



기아 ‘PV5’, 엡 왓 밴 어워즈 수상

기아는 영국 상용차 전문 매체 ‘왓 밴’(What Van)이 주관해 ‘2026 왓 밴 어워즈’서 PV5 카고 모델이 ‘올해의 밴’ 및 ‘올해의 콤팩트 밴’ 부문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PV5는 지난해 ‘2025 왓 밴 어워즈’ 주목할 모델’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왓 밴 어워즈에리며 다시 한번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



귀뚜라미-가스안전공사, 연합 봉사활동

귀뚜라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제19회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주제로 서울시 강서구와 충청북도 옥천군 일대에서 각각 진행한다.

/귀뚜라미

효성중공업, ‘1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효성중공업이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민솔 인턴기자

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수출하고 있다. 미국 전력시장에서는 제품 신뢰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압변압기 ▲리액터 ▲차단기 등 전력기기 뿐 아니라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0년 처음 진출한 이후 스웨덴·영국·프랑스·독일 등에 초고압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효성중공업의 독보적 기술력과 토털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별 맞춤형 전력기기 솔루션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 ‘헬로 미디어 캠프’ 성료

LG헬로비전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2025 헬로 미디어 캠프 — AI로 그린 로컬’ 영상제 시상식을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인천 지역 초·중·고 6개교 43명의 학생이 참여해 기획부터 촬영과 편집, AI 활용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진행했다.

이번 영상제에는 총 7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인천서창초등학교의 ‘친구가 필요해’가 LG헬로비전상을 수

상했다. 지역을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초등학생의 시선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계절과 지역 배경을 생생한 AI로 완성도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작품에는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설정을 통해 학생들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모습을 담아낸 연출도 포함됐다.

올해 헬로미디어 캠프에서 완성된 총 12편(목표 5편, 인천 7편)의 영상은 헬로tv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HK이노엔, ‘韓발명진흥회장’ 표창 수상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선정

HK이노엔은 지식재산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돼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열렸다.

‘직무발명제도’는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받고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K이노엔은 지난 2014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11년째 지속하고 있다. 임직원의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K-CAB)’이 있다.

HK이노엔은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 창출 역량도 높였다.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2014년 약 50건에서 2017년 약 150건으로 3배 성장했다. 또 2019년 직무발명제도 개정 전 누적 특허건수 516건은 개정 후 628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내·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무발명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허 출원·등록뿐 아니라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 보상까지 지원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SK그룹 <SK이노베이션 계열> △강태욱 △김중하 △이규혁 △이상훈 △지미연 △김영수 △이재열 △한성진 △이덕환 △이주환 △임근성 <SK이노베이션 E&S> △김도식 △박영욱 △우병훈 <SK온> △장철형 <SK하이닉스> △강봉길 △강부석 △강상철 △강영석 △고한석 △구인재 △김병렬 △김승호 △김영승 △김태한 △김판선 △김현석 △박노혁 △박사로한 △박석상 △박준덕 △박한울 △백영환 △손경배 △손윤익 △양명훈 △윤영우 △이민영 △이주석 △이희진 △임병용 △장경철 △정성훈 △정지현 △조윤정 △지해성 △채원태 △한혜승 △함동균 △홍명일 △황무연 △황인태 <SK텔레콤> △김석원 △김우람 △김태희 △신상민 △안홍범 △정형철 △최종복 △최훈원 △이정민 <SK브로드밴드> △김영범 △박상

훈 △신범식 <SK에코플랜트> △김상현 △김연주 △김은경 △김정훈 △이동규 △이상협 △박영훈 △선병학 △김창기 <SK네트웍스> △민복기 △이경렬 △최현규 <SK스퀘어> △소영환 <SK케미칼> △정지호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 △신원식 <SK㈜ AX> △곽희석 △권종민 △남주현 △백승환 △정제원 △조기수

◆ 대한항공 ◇전무 승진 △김해룡 △서호영 ◇상무 승진 △구은경 △이상훈 △박관영 △박병준 △정웅 △박철형 △김성열 △박세진 △강재영 △김일한 △황성원 △김성진 △이건영 △김지수 △김동연 △민경모 △김창훈 △길기남

◆ 진에어 ◇승진 △박병률 부사장 ◇신규 선임 △이정철 상무(DT전략실장)

우리은행, 사립학교 교직원 복지증진 나서

사학연금공단과 ‘맞손’

우리은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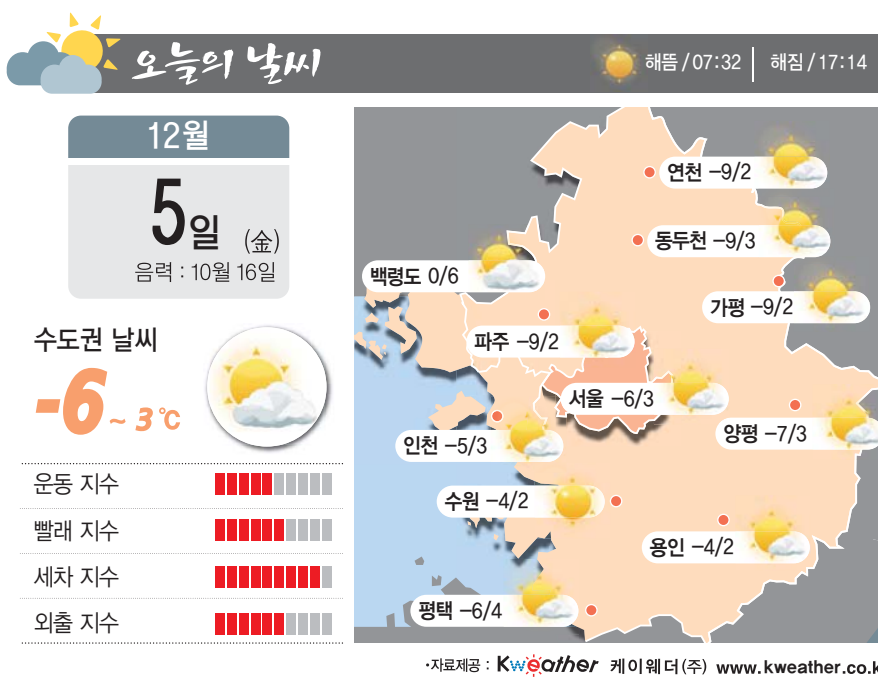
이날 양사는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 증진과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를 앞둔 중장년 교직원까지 우리은행의 연금 및 금융 전문가 금융 컨설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팅을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동화기업-영양군, 산불 피해목 재활용

동화기업은 지난 3일 경상북도 영양군과 산불 피해목 목재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김철주 동화기업 팀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화기업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한국은 대출금, 일본은 지원금



김승호의
시선

지난달 25일 오후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의 전국중소기업단체 중앙회와 함께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선 일본 중소기업청 야마자키 타쿠야 경영지원부장이 ‘일본 중소기업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5억엔의 정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다.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5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50억원 정도되는 큰 돈이다. 일본은 이 돈을 기업에게 대출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주고 있었다.
포럼에 참석했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한국의 중소기업인들은 매우의 이해했다.
우리나라 정책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자를 갖고 원금까지 돌려줘야하기 때문

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준 지원금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대출금이다.
김기문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신해 다시 되물었다. 야마자키 부장은 “5억엔을 무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최대 5억엔까지가 한계다. 10억엔을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5억엔 까지다. 단 1회까지만 지원해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많이하고 있어 이를 국내로 유도하기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자리에 함께 있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일본의 ‘진정한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의 정책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일색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업화 지원금, 수출 기업들을 위한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가 전부다. 운송료, 무역보험료, 통번역 등에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이 1억원(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강소기업) 정도다. 컨설팅, 마케팅

팅 등에 쓸 수 있는 혁신바우처도 5000만원(매출 140억원 이하 소기업)이 한도다. 기업에게 5억엔(약 50억원)을 무상으로 싸주는 일본과는 수준이 다르다.
물론 기업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상당하다. 국민 혈세니 당연하다. 그 중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일본이 지원 근거로 삼고 있는 ‘투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 자금과 관련해 해묵은 논쟁이 있다. 한정된 예산을 많은 기업들에게 골고루 주느냐, 될(성장할)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그중 하나다.
우리도 일본처럼 통크게 싸주는 순수 지원금 형태의 정책자금 도입을 심사숙고할 때가 됐다. 대출금보다 무상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국내에서 대규모로 투자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다면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무상으로 줬지만 이는 나중에 세금으로도 돌아온다.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1966년 제정)은 어느덧 60년을 향해간다. 일본은 우리보다 3년 빠른 1963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일본의 100년 가게, 100년 기업 숫자는 우리와 천지 차이다. 이곳에선 분명 비법이 있다.

/bada@metroseoul.co.kr

금융계급제 타파와 저소득층 포용



기지수첩
안재선의
(금융부)

금융계급제를 타파하면 정말 저소득층을 포용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저신용 서민 대출 최저금리가 15%가 넘어가는 것을 두고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엔 낮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서민만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리는 신용의 반대급부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위험이 보상되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구조다. 단순 시장 구조에 ‘잔인하다’는 감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그 잔인함을 문제 삼아 신용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금리 역전’ 현상을 유지한다고가 정해 보자. 가난한 사람이 정말 죽을 맛에서 벗어나 포용 금융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근본 취지가 실현되고 보장될 수 있을까.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보호 대상이다. ‘가난한 사람=저신용자’가 아니다. 정부는 누구를 보호하려는지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신용점수는 단순 소득 규모가 아닌 대출 규모, 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연체 이력이 없으면 고신용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자여도 대출 규모가 크고 연체 이력이 잦으면 저신용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대출이 많고 연체 이력이 잦은 사람이 아니다.
신용점수별 금리 역전 현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금리 왜곡으로 고신용자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제2금융권 대출 약정 금액은 지난달 초 기준 10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이야말로 서민 금융의 영역이다. 고신용자가 서민 금융의 영역으로 밀려온다면, 2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음지 영역으로 연달아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상생금융, 포용금융, 서민금융 등 그 많은 단어가 향하는 보호 대상은 저소득층이다. 적합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wotis4187@

오늘의 운세12월 5일 (음 10월 16일)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 48년생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60년생 이력서 낸 곳에서 소식이 온다. 72년생 과음을 자제하고 바로 귀가를 하자. 84년생 세상에 모든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소

37년생 처음에는 즐거운 만남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가. 49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61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힘내라. 7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을 보는 법이 아니 서운해 마라. 85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호랑이

38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50년생 모두 자신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62년생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 받는다. 74년생 새로운 인연은 흠잡지 않을 수 있으니 자제. 86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토끼

39년생 이직보다는 양보하면 기회가 찾아오니 기다려보라. 51년생 모처럼 한가로운 하루. 63년생 꽃동산에서 여유 있게 노니는 격. 7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87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용

40년생 제3자로 가족의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52년생 의욕이 지나치면 실수가 따르니 절제를. 64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 76년생 의지하다보면 발전이 더디니 자립심으로. 88년생 우울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 본다.

뱀

41년생 유래 통래 상쾌한 하루. 53년생 취미생활에도 관심을 가져보라. 65년생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협동과 소통으로. 77년생 분주해 하지 말고 일의 순서를 정해놓고 움직이도록. 89년생 상승의 운이니 모임에서도 진취적.

말

42년생 혼자서 가고 마음대로 멈춘다. 5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 66년생 경험 부족으로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78년생 아침부터 부부간의 가정불화로 관재구설수가 따른다. 90년생 몸은 고달 피도 마음이 즐겁다.

양

43년생 운을 바꾸기 위해 주변의 정리정돈을 한다. 5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7년생 주변에 부담은 주지 마라. 79년생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복잡. 91년생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아프지 않다.

원숭이

44년생 유리한 정보를 얻어서 이득을 본다. 56년생 애정 문제는 당분간 삼각관계를 초래한다. 68년생 돼지꿈을 꾸었으니 뜻을 이룬다. 80년생 반려아기를 키우려면 돈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서. 92년생 정성껏 기도로 관재구설을 면해보라.

닭

45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야지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57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69년생 경사가 겹치니 금상첨화. 81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93년생 그동안의 베풀 덕으로 결실을 얻는다.

개

46년생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58년생 공동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0년생 불평 마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82년생 작은 오해가 시간이 가면 골이 깊어지니. 94년생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만족하라.

돼지

47년생 태산이 되지 못해도 움직이자. 59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니 매사 조심. 71년생 새로운 계획은 생각을 신중히. 83년생 투자의 속삭임이 있으니 신중하게. 9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하는 속담이.

김상회의四季

유모(乳母)의 힘



유모(乳母)는 특별한 존재다. 유모(乳母)는 산모를 대신하여 유아에게 젖을 먹여 길러 주는 여성으로서 젖어머니라고도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분유가 발달하여 산모의 젖이 부족하더라도 분유를 타서 먹이니 옛날처럼 산모가 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유모를 구하여 젖을 먹이는 일은 거의 생소한 일이 되었다. 전통시대 때에는 양반이나 왕가의 자제들은 산모의 수유 능력 유무를 떠나 유모를 두는 게 보통이었다. 지체가 높거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안주인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없어 아이를 살피고 보호하고 역할을 해야 했기에 유모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들의 직장생활 등 사회참여가 높아지니 분유 체제로 넘어가면서 전통적 유모들은 점점 사라진다.
유모는 단지 젖만 먹이는 게 아니어서 아동을 지나 성년이 되고도 유모와 정서적 유대가 깊은 경우를 흔히 본다. 현대인들 중에서 유모와의 연대가 깊기로 소문 난 이는 바로 영국의 찰스왕이다. 왕세자로만 50년을 넘게 있었던 찰스 왕은 유모와의 각별함으로 유모가 퇴직할 때 엄청난 퇴직금과 선물을 주었다 하며, 심지어 세기의 불륜으로 영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미움을 산 카밀라가 유모와 외모가 비슷하여 심정적 안정과 유대감을 느껴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시대 때도 왕손이나 세자의 유모들은 혹여 자신이 유모를 했던 왕손이나 세자가 보위에 오르게 되면 권문세가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다. 먼천은 물론 종 몇 품의 품계까지 받고, 유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종친 중 채택되기도 했지만, 종인들이나 평민들도 아닌 천민 출신이 많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젖이 풍부해야 했으므로 음식도 영양 좋은 성찬의 음식들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4	3	1
8							
7			4	3			
3		7				6	
		6				2	9
			9	6			8
							3
9	7	3	1				2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중·하·고 100문제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9	7	8	1	8	2	6
8	6	1	2	2	9	8	9	7
8	7	2	9	8	6	9	1	2
6	8	2	9	2	8	9	7	1
2	1	8	6	7	9	2	8	9
7	9	9	2	1	8	2	6	8
9	2	8	8	6	7	1	9	2
9	2	6	1	9	2	7	8	8
1	8	7	8	9	2	6	2	9

7	2	8	2	6	1	9	8	9
6	2	9	8	9	2	7	8	1
8	9	1	9	8	7	2	2	6
8	9	6	8	9	9	1	7	2
2	9	7	1	2	2	8	6	9
2	1	9	7	8	6	2	9	8
9	7	8	6	2	8	9	1	2
9	6	2	2	1	8	8	9	7
1	8	2	9	7	9	6	2	8

기후변화 속, 보르도가 찾은 해답… ‘그레이트’ 2022 빈티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05

우려가 기대로 바뀌었고, 기대는 현실이 됐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 2022 빈티지에 대한 서사다.

와인은 과실미와 부드러운 타닌이 균형을 잘 맞췄고, 신선한 생동감이 느껴졌다. 보르도 와인이 기다리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향긋했나 싶더니 입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풀렸다. 초여름부터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2009년 이후 가장 무더웠던 해였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보르도만의 모범답안을 찾은 셈이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이 주최한 ‘2025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가 지난 달 열렸다. 68개 그랑 크뤼 와이너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2022년 빈티지를 선보였다.

‘그랑 크뤼(Grand Cru)’는 프랑스어로 뛰어난 포도밭을 뜻한다. 매우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나 포도밭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현재 132개의 최고 샤토들로 구성된 UGCB는 1973년에 설립됐다. 매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음 행사를 열어 각국이 회원 샤토와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시음회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700명 안팎의 와인 업계 관계자들이 몰렸다.

2022년은 기후만 놓고 보면 기대를 할 수 없었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5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



와인 스펙테이터와 제임스 서클링이 각각 1위로 선정한 샤토 지스쿠르 2022(왼쪽)와 샤토 디쌍 2022.



와인 스펙테이터와 제임스 서클링이 각각 1위로 선정한 샤토 지스쿠르 2022(왼쪽)와 샤토 디쌍 2022.

던 해다. 서리와 우박에 이어 봄에는 이른 더위가 찾아왔고, 몇 차례 폭우까지 이어졌다. 지구온난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매우 덥고 건조한 여름도 견뎌야 했다.

포도재배부터 수확, 양조까지 그간의 노하우와 기술을 쏟아부은 와이너리는 물론 기후변화에 놀라게 적응한 포도나무가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었다.

프랑수아-자비에 마로토((Francois-Xavier Maroteaux) UGCB 회장은 2022 빈티지에 대해 “풍부한 과실미와 탄탄한 구조감, 신선함과 집중도를 모두 갖춘 뛰어난 균형감을 보여주는 빈티지”라며 “지금 바로 마셔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20~30년 뒤에도 훌륭한 잠재력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로토 회장은 올해 2월 UGCB의 회장으로 선

출됐다. 생-줄리앙에 위치한 와이너리 샤토 브라네르-뒤크뤼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 패트릭 마로토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UGCB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은 “올해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새로 출시된 보르도 2022년 빈티지”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건조한 해였음에도 레드와 화이트 와인 모두 집중력과 생동감을 유지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대부분의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15도에 육박하고 산도가 낮지만 이런 특징 덕분에 바로 마시기가 쉽다”며 “더 이상 보르도 와인을 따라 마시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말을 맞아 올해의 와인을 가리는 자리도 모두 보르도가 차지했다. 평가기준은 물론 지향점도 다

른 두 매체가 올해 최고의 와인으로 나란히 보르도 2022 빈티지를 택했다.

와인 스펙테이터의 선택은 ‘샤토 지스쿠르 2022’다. 제임스 몰스워스는 “샤토 지스쿠르는 보르도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와이너리들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며 “특히 2022년 빈티지는 그 해의 특징을 완벽하게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서클링은 ‘샤토 디쌍 2022’를 1위로 꼽았다. 그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과일 향이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다시 찾게 만들었다”며 “생산량은 10만병이 넘고, 가격도 70달러 안팎으로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연말 책임질 돌비 시네마 라인업 ‘풍성’

반지의 제왕, 주토피아2, 아바타 ‘대작’ 상영
웅장하고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생생함 전달

메가박스가 연말 극장가를 사로잡을 세 편의 영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주토피아2’, ‘아바타: 물과 재’를 생동감 넘치는 비주얼과 웅장한 사운드로 압도적인 감동을 줄 돌비 시네마로 상영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관람할 수 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의 두 번째 편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이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트모스에서 3일부터 재개봉했다. 평화를 지키고자 절대반지를 파괴하기로 결심한 반지 원정대가 이를 위해 반지가 처음 만들어진 운명의 산 모르도르를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담았다. 광활한 헬름 협곡에서 로한 왕국과 아이센가드 군이 벌이는 치열한 전투는 돌비 비전을 통해 압도적인 스케일로 생생하게 펼쳐지며, 돌비 애트모스로 구현된 웅장한 사운드는 관객들에게 드라마틱한 감동을 선사한다.

4일부터는 9년 만에 돌아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를 돌비 시네마 포맷으로 관람할 수 있다. 주토피아 최고의 콤비 주디와 닉이 도시를 뒤흔든 정체불명의 뱀 게리를 쫓아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며 위험천만한 사건을 수사하는 모



메가박스가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주토피아 2’, ‘아바타: 물과 재’를 웅장한 사운드의 돌비 시네마로 선보인다.

험을 그렸다. 주토피아 곳곳의 다채로운 지역과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주디와 닉이 새로운 세계로 뛰어드는 장면들은 돌비 비전의 선명한 명암 대비를 통해 생생하게 구현된다.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의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마치 두 주인공과 함께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

17일에는 3D 판타지의 새 역사를 쓴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 ‘아바타: 물과 재’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한다. 첫째 아들 ‘네데이암’의 죽음으로 상실에 빠진 ‘제이크’와 ‘네이티리’ 앞에 재의 부족이 새롭게 등장하며, 불과 재로 뒤덮인 판도라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위기를 그렸다. 뜨겁게 타오르는 판도라의 강렬한 비주얼은 돌비 비전으로 한층 장엄하게 구현돼 환상적인 비주얼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바다와 공중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역동적인 전투는 돌비 애트모스의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통해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넥슨과 ‘블루 아카이브’ 4주년 기념 영화 개봉

롯데시네마가 넥슨과 손잡고 ‘블루 아카이브’ 4주년을 기념한 영화 개봉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12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하는 ‘블루 아카이브: 디 오케스트라 인 시네마’는 넥슨의 대표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재해석한 ‘2025 사운드 아카이브: 디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을 담은 작품이다.

이번 영화에는 ‘Constant Moderato’, ‘Aoharu’, ‘꿈길 위의 꽃’ 등 ‘블루 아카이브’를 대표하는 곡들의 오케스트라 편곡과 다양한 악기 및 보컬, 중창단 협연으로 완성된 풍성한 무대를 극장 스크린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게임 개발진과 공연 관계자의 인터뷰가 더



해져 오직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비하인드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롯데시네마의 대표 음향 특화관 인광음시네마에서도 상영되어 오케스트라의 깊은 울림과 웅장함을 섬

세한 사운드로 즐길 수 있다. 개봉에 맞춰 주차별 굿즈와 함께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극장에서 4주년 축하 열기를 더욱 뜨겁게 이어갈 예정이다.

전시부터 체험까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서울 팝업 오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서울 공식 팝업이 4일 성수동에서 본격 오픈했다. 이번 팝업은 작품 속 세계관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체험형 공간이다.

이번 팝업은 3개 층 전체가 하나의 세계관 체험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3층 쇼룸에서 본격 관람 전 상품 무드를 먼저 경험하고, 2층에서는 ‘How

It’s Done’, ‘Soda Pop’ 등 대표 OST 테마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전시·체험존을 통해 작품 전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다.

이어 1층에서는 상품 현장 수령 및 구매 후 키링·와펜 커스터마이징 공간을 거쳐, 마지막 ‘골든 스테이지’에서 세계관 메인 서사인 ‘훈문’을 직접 완성하며 경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진핑·마크롱 회담…“이건 극복하고 전략 협력 강화”

/사진 뉴시스

▲日 금리 인상 ‘신호’ 영향 계속…10년물 국채금리 18년만 최고치

▲“日다카이치 ‘중·일 성명’ 언급은 긴장 완화 움직임”

▲日 출생아 2025년에도 ‘역대 최소’ 전망…예측 15년 앞당겨져

▲트럼프, ‘뇌물수수 혐의’ 민주당 하원의원 깜짝 사면…공화당 당혹

▲美 베네수아 공격?…우방국 자처 중, “군사 지원 않고 경제 이득 챙길 것”



삼양
업계 첫
9억불 수출탑
L1

metro®

Life

바이오협회
AI 산업전환
규제개편 '관건'
L2



수소 기술 총출격... 수전해·모빌리티 등 미래 에너지 현실로

WHE 2025

아태지역 최대 수소박람회 4일 개막
총 26개국 279개사 참가 '최대규모'
수소경제현황 공유, 생태계 확산 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관련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이하 WHE 2025)'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WHE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WHE 2025는 오는 7일까지 나흘 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올해부터 기존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H2 MEET 전시회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WHE 2025에는 해외 26개국 279개의 국제기구,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서 참가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경제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같은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현대자동차그룹 부스 전경.

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통해 수소 밸류체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충전, 모빌리티, 산업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 구축 전략을 총망라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시관에는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

전해 ▲폐기물 활용 수소 생산(W2H) ▲암모니아 크래킹 등 청정 수소 생산 기술과 ▲이동형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차 자동충전 로봇 등 차세대 충전·저장 솔루션이 공개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신형 '디 올 뉴 넥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등 승·상용 수소차는 물론 농기계·선박·방산 등 확장형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다수 전시한다. 그룹은 전기·철강·항만 등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수소 기반 탈탄소화 솔루션도 함께 제시한다.

현대차그룹, 수소 밸류체인 총망라
생산부터 산업활용까지 생태계 구축

코오롱그룹, 첨단기술·솔루션 선배
고기능성 소재개발 등 수소경제 선도

HD현대인프라코어, 수소엔진 공개
22리터급 세계 최대규모 상용화 앞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며,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면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며 "수소는 미래 에너지 전환의 게임 체인저"라고 덧붙였다.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 ENP,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등 계열사가 보유한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수소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첨단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그룹 내 수소사업분야 핵심 역할을 맡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인 수분제어장치와 고분자전해질막(PEM), 막전극접합체(MEA) 등 첨단 수소기술 부품 및 소재들을 전시한다. 코오롱ENP는 소음기 하우징, 히터 하우징, 막가습기 하우징, 이온필터 하우징 등 수소차 핵심 부품 소재들을 전시하며 수소차 특성에 최적화된 고기능성 소재 솔루션을 제안한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 중간재 '토우프레그(Towpreg)'와 수소연료탱크를 전시한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모빌리티, 수전해 등 다양한 수소 산업들에 핵심 부품·소재들을 공급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소경제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세계 최대 규모인 22리터급 수소엔진을 최초로 공개했다. 발전용으로 상용화를 앞둔 'HX22' 모델이다. V형 12기통 구조로 최대 출력 600kW(816마력), 연속 출력 477kW(649마력)의 성능을 갖췄다. 약 200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친환경 발전 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와 합병해 내년 1월 HD건설기계로 새롭게 출범한다. HD건설기계는 향후 엔진 사업을 신성장축으로 키울 예정이며, 수소엔진은 친환경 전환에 발맞춘 전략 제품으로 지목된다.

임형택 HD현대인프라코어 엔진사업 본부장은 "이번 전시는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엔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 2일 개최된 '수소위원회 CEO Summit'에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주요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HD현대인프라코어가 4일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수소 산업 행사 'WHE 2025'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22리터급 수소엔진.

메트로 한줄뉴스



▲두산, 아시아쿼터로 일본인 우완 투수 다무라 영입
▲KIA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 2+1년 45억원에 잔류... "도전 끝나지 않았다" /사진 뉴시스

▲르아브르전서 나온 이강인 리그 1호골, 'PSG 11월 이달의 골'
▲MLB 전 단장 "김하성, 합리적 계약하고 애틀랜타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

▲양현준 소속팀 스코틀랜드 셀틱, 윌프레드 낭시 감독 선임
▲이재성 소속팀 마인츠, 리그 꼴찌에 헨릭센 감독과 결별